



문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 돈 풀겠다" 5



통신 CEO '자사주 매입 수익률' 1위는 14

남양유업, PEF에 매각

3100억 규모 흥원식 前 회장 등 오너일가 지분 한앤코에 넘겨

불가리스 사태로 논란을 빚은 남양유업이 국내 사모펀드인 한앤컴퍼니에 매각된다.

남양유업은 27일 흥원식 남양유업 회장, 흥원식의 아내 이운경 씨, 손자 흥승의 씨가 남양유업 주식회사 보유주식 전부를 한앤코에 양도했다고 공식했다.

▶관련기사 2면
흥원식 전 회장의 남양유업 지분 51.68%를 비롯해 부인과 동생 등 일가 주식은 53.08%에 이른다. 3인의 보통주 총 37만8938주를 매각하게 되면 매각가는 3107억 원에 이른다.

남양유업은 최근 자사 발효유 제품인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연구결과를 발표한 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등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남양유업은 지난달 13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를 77.8% 저감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효과를 예상하기

어렵다고 반박하고 나섰고,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남양유업 제품 불매운동이 벌어졌다.

세종시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의 2개월 영업 정지 처분을 사전 통보한 상태다. 사태가 악화하자 흥 전 회장은 4일 기자회견을 열어 회장직 사퇴를 전격 발표했고 자식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2013년 대리점 갑질 사태, 대주주 일가인 황하나 마약 사건 등 수차례 구설에 오르면서 기업 이미지가 추락하자 회사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남양유업을 인수하는 한앤코시멘트홀딩스는 사모투자 전문업체인 한앤컴퍼니가 구 쌍용양회(현 쌍용씨앤이)를 인수하고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자, 1분기 기준 쌍용씨앤이 지분 77.68%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한앤컴퍼니는 2013년 적자였던 웅진식품을 인수해 성공적으로 매각했으며, 지난해에는 대한항공 기내식기판 사업을 인수했다.

김혜지 기자 heyji@



윤호중(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정책의원총회에서 박원주(가운데) 정책위 의장, 김진표 부동산선특위 위원장과 논의하고 있다.

與 “재산세 감면 기준 6억→9억 상향”

“LTV 우대폭 10%P→20%P 확대” 종부세·양도세 완화는 결론 못내

주택임대사업자제도 폐지

더불어민주당은 27일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기준을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그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에 재산세율을 0.05% 포인트(p) 감면하기로 했다.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수준도 기존 10%p에서 20%p로 늘리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정책 관련 의원총회 및 당정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공시가격 6억~9억 원 구간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한 재산세율이 기존 0.4%에서 0.35%로 감소하게 됐다. 추가로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 주택은 44만 호로, 주택당 평균 18만 원씩 총 782억 원이 감면된다.

무주택자 대출규제 LTV 우대 조건은 부부합산 연소득을 기존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 이하로, 생애최초구입의 경우는 9000만 원에서 1억 원 미만으로 상향했다. 주택 기준으로는 투기과열지역은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 원에서 8억 원 이하로 완화했다. 우대 수준 또한 높였다. 투기과열지구는 기존 50%에서 6억 원 이하는 60%로 높이고, 6억 원 초과분에 대해선 50%를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은 5억 원 이하는 기존 60%에서 70%로 올리고, 초과분은 60%를 적용한다.

주택임대사업자제도의 경우 건설임대는 현행을 유지하되, 매입임대사업자 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임대사업자의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를 6개월간 유예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종부세 합산배제 등 세제 혜택은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사업에 임하는 동안에는 유지시키고, 의무

임대기간이 끝나면 추가 연장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기존 총 205만 호 공급계획을 빠르게 추진하는 데 더해 복합개발부지·이전공공기관부지에 청년·신혼부부 주택 1만 호와 '누구나 집' 시범사업 1만 호 등을 추가한다. 이외 군공항 이전 등 추가 공공택지는 민주당과 정부가 각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또 토지임대부양주택과 지분적립형주택, 이익공유형주택인 '누구나 집' 등을 확대 공급할 대책도 마련해 다음 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종부세와 양도세는 결론을 짓지 못하고 다음 달 공청회를 열어 재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종부세에 대해 공시지가 기준 상위 2%에만 부과하는 안으로 정했다. 양도세의 경우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데 당정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호 기자 uknow@

보험 “원금 보장” vs 금투 “수익 내야”

258兆 퇴직연금 살바싸움

업계, 원금보장 포함 여부 놓고 이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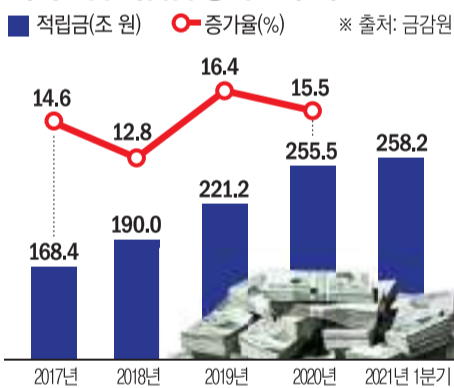
#. 마포구에 사는 직장인 김모(38) 씨는 지난 10년간 열심히 쌓아온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이 1%대라는 걸 알고 실망했다. 그렇다고 퇴직연금을 주식형 펀드와 같은 위험자산에 투자하기에는 판단이 제대로 서질 않는다. 주식 투자 경험도 없었던 김 씨는 퇴직연금을 관리할 시간도 없기 때문이다. 최근 업계에서 디폴트옵션제가 논의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기대감이 크다. 미국에서는 디폴트옵션으로 퇴직연금 수익률이 연평균 7%대에 달한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디폴트 옵션은 금융사가 정한 상품에 자동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따로 운용 지시를 내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김 씨는 “하루빨리 디폴트 옵션제도가 도입되면 좋겠다”고 말한다.

국내 퇴직연금 규모가 매년 크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자금이 원금보장 상품에 묶여 연 1%대 수익률을 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국내 가입자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는 퇴직연금을 금융투자업자가 알아서 운용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앞서 디폴트옵션을 도입한 해외 선진국의 경우 연평균 6~7%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어 국민 노후자금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련기사 4면
27일 이투데이가 금융감독원 통계를 종합한 결과, 올 1분기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총 258조2000억 원으로 전년 말(255조5000억 원)보다 3조 원(1.1%)가량 증가했다. 2019년 말(221조2000억 원)과 비교하면 16.7% 증가했다. 퇴직연금 규모는 매년 두 자릿수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퇴직연금은 제도 유형별로 확정기여형(DC), 확정급여형(DB),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나눌 수 있다. 2020년 기준 DB형에 153조9000억 원, DC형에 67조2000억 원, IRP에 34조4000억 원의 국민 노후 자금이 들어 있다.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율 추이



상품 유형별로 보면 예적금과 보험 등이 포함된 원금보장형과 펀드 등을 담은 실적배당형이 있다. 현재 80% 이상의 자금이 원금보장형에 묶여 1%대 수익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4월 기준 물가상승률이 전년 대비 2.3%라는 점에서 1% 수익률은 사실상 마이너스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처럼 퇴직연금이 1%대 수익률에서 방치되고 있는 것은 국내 가입자들이 퇴직연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따르면 2월 미래에셋투자자연금센터에서 진행한 연금이해력 조사 결과 전국 30~59세 남녀 직장인의 연금이해력 평균은 100점 만점에 47.6점에 불과했다. 연금 운용과 연금 인출 단계에 대한 이해도가 특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디폴트옵션에 원금보장형을 포함하는 문제를 두고 보험, 은행 업계와 금융투자업계 간 치열한 공방이 진행되고 있다. 보험, 은행업계는 디폴트옵션에도 원금보장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금융투자업계는 그렇게 되면 디폴트옵션 도입의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는 여야 간 대립으로 이어지면서 디폴트옵션제도 도입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근퇴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손엄지 기자 eom@

네이버·카카오 “뉴스편집 알고리즘 공개 검토”

국회서 ‘편향성 논란’ 도마 위

국회가 포털의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압박하자 네이버와 카카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알고리즘을 공개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는 27일 포털 알고리즘 관련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했다. 공청회에는 관련 전문가를 비롯해 네이버와 카카오 임직원이 참석했다.

공청회는 포털의 뉴스 편집 알고리즘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방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달 초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털사이트의 뉴스 알고리즘을 공개하도록 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앞서 이원욱 과방위원장도 뉴스·검색 알고리즘을 매년 정부에 제출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포털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알고리즘의 개발과 설계,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하지만 알고리즘도 사회적 구성하는 요소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법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며 “초기 단계에선 자율 규제와 같이 비강제 규제가 맞지만, 불가피한 경우 사후적 규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포털 뉴스 편집 및 댓글 노출 알고리즘에

적용되는 기술만 공개돼 있을 뿐 세부적인 로직, 가중치 항목 또는 수집되고 사용되는 정보의 종류를 공개하지 않아 포털 AI 알고리즘의 설계 및 초깃값 설정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알고리즘 공개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최재희 네이버 에이스 이사는 “네이버는 이미 인링크 방식과 아웃링크 방식으로 뉴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판단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희정 카카오 플랫폼사업실장도 “해당 제안을 검토하지 못했지만,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흥 회장 사퇴에도 소비자 신뢰 회복 어렵다 판단

남양유업 오너 지분 전부 사모펀드에 매각

갑질 논란부터 불가리스까지 잇단 구설... 실적 악화도 한뫼 한앤컴퍼니 "집행임원 구성, 기배구조 개선·기업가치 제고"

남양유업이 국내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에 결국 매각됐다. 과거 '갑질 논란'부터 최근 불가리스 사태까지 구설이 끊이지 않았던 남양유업에 대해 흥원식 회장 등 오너 일가가 더는 소비자 민심을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남양유업은 흥원식 남양유업 회장, 흥회장의 아내 이운경 씨, 손자 흥승의 씨는 남양유업 주식회사 보유주식 전부를 한앤컴에 양도했다고 27일 공시했다. 흥원식 전 회장의 남양유업의 지분 51.68%를 비롯해 부인과 동생 등 일가 주식은 53.08%에 이른다. 이들 3명의 보통주 총 37만 8938주를 매각하게 되며 매각가는 3107억 원이다.

◇'불매운동' 대명사... 소비자 민심 악화로 = 남양유업이 사모펀드에 매각을 택한 건 악화된 소비자 여론을 더는 회복

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봤기 때문이다. 그동안 남양유업은 대리점 갑질 논란, 흥 회장 외조카 황하나 마약 사건, 경쟁사 비방 댓글 사건 등이 불매운동으로 이어지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으나, 뼈를 깎는 경영 쇄신 대신 '불통 경영'을 고수해왔다.

최근에는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사태'가 사모펀드 매각의 도화선에 불을 지폈다. 남양유업은 발효유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연구결과를 발표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제품 전체 매출의 40%를 차지하는 세종공장이 운영정지 위기에 놓이면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결국, 흥 회장이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를 하며 경영 일선에게 물러나겠다고 했지만, 소비자 민심을 돌리기엔 역부족이었



흥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4일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열린 '불가리스 사태'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다. 이후 남양유업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구축하고 아내와 아들이 등기이사에서 사임했지만 흥 회장은 등기이사직에서 남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자 여론 회복은 더 어려워졌다.

악화일로를 걷는 남양유업의 실적도 매각 배경으로 손꼽힌다. 남양유업 매출은 대리점 갑질 논란 이전인 2012년 1조

3650억 원에서 지난해 9489억 원으로 30.5% 감소했다. 우유 시장 점유율은 물론 RTD커피 등에서도 경쟁사에 추월당하는 굴욕을 맞았다.

◇한앤컴퍼니 "국내외 대표기업으로 도약시킨 경험" = 남양유업을 사들인 한앤컴퍼니는 국내 최초로 투자회사에 도입한 집행임원제도를 남양유업에도 적용해 지배

구조 개선과 경영 효율화를 통한 기업 가치 제고를 추진할 예정이다.

집행임원제도는 의사결정과 감독 기능을 하는 이사회와 별도로 전문 업무 집행 임원을 독립적으로 구성하는 제도로 이사회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집행부의 책임 경영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한앤컴퍼니는 투자회사의 기업제질, 실적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국내의 대표기업으로 도약시킨 경험을 기반으로 남양유업의 경영쇄신을 이를 계획이다. 앞서 한앤컴퍼니는 2013년 적자였던 웅진식품을 인수해 볼튼은 전략으로 내실과 경쟁력을 강화한 후 성공적으로 매각한 바 있으며, 지난해에는 대한항공 기내식기판 사업을 인수 후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체질 개선과 내실을 다지고 있다.

한앤컴퍼니 관계자는 "한앤컴퍼니는 기업 인수 후 기업의 체질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로 기업 가치를 높여왔다"라며 "적극적인 투자와 경영 투명성 강화를 통해 소비자와 딜러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랑받는 새로운 남양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혜지 기자 heyji@

세상에 행복을 **水** 놓다,
World Top K-water

물로 더 행복한 세상!
한국수자원공사가 국민감동을 위해 거듭나겠습니다.

환경부 |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백악관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美 '아시아 차르' 커트 캠벨

"중국 포용하던 시대 끝났다"

“정책 변화 배경은 시진핑 때문”
바이든, 코로나 기원 조사 지시
미국, 무역협상 등 전방위 압박



“미국은 중국과 한층 더 치열한 경쟁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과의 본격적인 '대치 모드'를 선포했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커트 캠벨(사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이날 스탠퍼드대학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센터 주최로 열린 온라인 행사에서 “중국에 대한 ‘포용의 시대’는 시대가 끝났다”며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이제 새로운 전략으로 운영될 것이며 지배적 패러다임은 경쟁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캠벨 조정관은 버락 오바마 전 정부에서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지내며 '아시아 회귀 정책(pivot to Asia)'을 설계한 인물이다. 조 바이든 현 정부에서는 아시아 전략을 총괄해 '아시아 차르'로 불린다.

미국의 이 같은 정책 전환의 배경으로 캠벨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대외정책을 지적했다. 그는 인도와의 국경 분쟁에서부터 호주에 대한 경제보복, '늑대전사'를 자처하는 중국 외교관들의 호전적 행태 등을 언급하며 “이러한 중국의 행보는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신호로서 강경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캠벨 조정관은 시 주석을 직접 겨냥하는 발언도 이어갔다. 캠벨은 “미·중 관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의 중심에는 시 주석이 있다”며 “그는 심하게 이데올로기적이지만 감상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고, 경제학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 꼬집었다. 캠벨은 그러면서 “최고의 중국 정책은 정말 좋은 아시아 정책”이라면서 동맹국과의 협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날 행사에서 중국을 견제할 인프라 전략을 주제로 올해 가을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 협의체)

대면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이미 전방위적으로 중국 압박에 나선 상황이다. 특히 캠벨 조정관의 이날 발언은 바이든 대통령이 정보기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원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하여 90일 이내로 새로운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나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가 중국 우한 바이러스연구소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작다는 보고서를 내놨지만,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우한 연구소가 유출장소일 수 있다는 의혹을 보도하면서 발원지 논란이 다시 불붙은 상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국은 완전하게 투명하고 증거에 근거한 국제 조사에 참여하고 관련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중국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파트너들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우선순위에 잠시 미뤄뒀던 미·중 무역 갈등도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이날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중국 측 고위급 무역협상 대표인 류허 부총리와 전화 회담을 했다. 양국 무역협상 대표가 대화를 나눈 것은 바이든 정권 출범 이후 처음이다. USTR는 성명에서 “타이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의 노동자 중심 무역 정책에 대한 원칙을 밝혔다”며 “미·중 무역 관계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우려 사항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측은 무역관계 개선 필수 요소로 관세 인하 조치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與 “종부세 상위 2%에만”... 정부 “감면 대신 유예”

‘9억→12억’ 양도세 완화 공감, 장기보유특별공제 이전
친문 “부자 감세” 거센 반발... 합의 실패 땀 현행 유지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27일 4·7재보선에서 드러난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다독이고자 실수요·1주택자 재산세 감면에 나섰다. 찬반 의견이 갈렸던 종합부동산세 완화 문제는 30일 고위당정협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종부세는 당론으로 공시지가 상위 2%에 대해 부과하기로 했지만 내부 반발이 심해 보류했다.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종부세 기준 9억 원에서 12억 원 상향은 절대 안 한다”며 “재산세도 완화해 주는데 종부세까지 또 완화해준다는 건 과세체계만 무너뜨리고 불공평한 조장한다”고 밝혔다. 애초 과세기준액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이날 발표에서는 제외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공언했던 LTV 상향은 무주택자 대상 제한적으로 소득·주택가격 기준을 완화하고, 우대 수준은 기존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높이는

것으로 정해졌다. 대출 최대한도는 4억 원, 대출자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 이내다. 다만 청년을 위해 DSR 산정 시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한 연구기관 발표를 보면 30대 초반에서 50대 중반으로 가면 소득이 76% 증가한다”며 “이런 미래소득을 반영한 기준으로 DSR 적용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다. 금융기관은 점쟁이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재산세와 대출규제의 경우 이날 의원총회에서 무리 없이 결론을 냈지만, 당내 의견차가 큰 종부세와 양도세는 다음달 공청회를 열어 재논의하기로 했다. 합의가 불발되면 종부세·양도세 모두 현행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종부세는 민주당의 경우 공시지가 상위

2%에만 과세하는 안으로 모였다. 정부는 현행 유지하되 전년 소득 3000만 원 이하 실거주 60세 이상 1주택자를 대상으로 납부유예를 하지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매년 공시지가가 오를 때마다 논쟁을 반복하지 말고 상위 2% 정도를 대상으로 해 논란을 근본적으로 종식시키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측에선 민주당 안을 긍정평가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물가변동 등 변화를 자연스레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별다른 조치 없이도 가능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양도세는 종부세와는 달리 민주당과 정부 모두 1주택자 대상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시키는데 공감했다. 다만 양도차익 규모별 장기보유특별공제 상향을 설정하는 문제로 정부와 추가 협의가 필요해 미뤄졌다.

이에 종부세와 양도세는 다음달 결국 좌초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 친문(문재인)을 중심으로 ‘부자 감세’라는 반대 목소리가 거세기 때문이다. 이날 의총에서도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호 기자 uknow@

더불어민주당 주택시장 안정 방안 주요 내용

※ 출처: 더불어민주당

LTV 완화: 서민·실수요자 (무주택 세대주) 우대 요건 및 혜택 개선

구분	현행		개선안	
	투기지역·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소득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0.8억 원 (생애 최초 0.9억 원)		부부합산 연소득 0.9억 원 이하 (생애 최초 1억 원 미만)	
주택 기준	6억 원 이하	5억 원 이하	9억 원 이하	8억 원 이하
LTV 우대	50%	60%	~6억: 60% (+10%p) 6~9억: 초과분 50%	~5억: 70% (+10%p) 5~8억: 초과분 60%

재산세: 공시 6~9억 원 구간도 현행 감세율 0.05%p 이하 적용

표준세율	현행	특례세율	특위안
0.6억 원 이하 (공시 1억 원)	0.1%	0.05%	0.05%
0.6~1.5억 원 이하 (공시 2.5억 원)	0.15%	0.1%	0.1%
1.5~3억 원 이하 (공시 5억 원)	0.25%	0.2%	0.2%
3~3.6억 원 이하 (공시 6억 원)	-	0.35%	0.35%
3.6~5.4억 원 이하 (공시 9억 원)	0.4%	-	0.35%
5.4억 원 초과 (공시 9억 원 초과)	-	-	-

적용 효과
 ■ 대상: 44만 가구
 ■ 총 감면액: 782억 원 (주택 당 평균 18만 원)

양도세 및 종부세는 추가 협의를 거쳐 6월 중 대안 마련

양도세	- 비과세 기준 현실화: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금액 9억 원 → 12억 원 상향 - 장특공제 차등적용: 양도차익 규모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상향설정
종부세	- 특위안: 공시지가 상위 2% 한정 과세 - 정부안: 현행 유지하되 납부유예제도 도입 등

더불어민주당

3기 신도시 고밀개발, 1기는 리모델링

청년주택 등 2만 가구 추가공급

더불어민주당이 주택을 2만 가구 이상 추가 공급하겠다고 나섰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주택 추가 공급을 논의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결정했다. TF엔 주택 관련 부처 차관과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가 참여한다.

민주당이 공개한 추가 공급 방안은 크게 다섯 가지다. 청년·신혼부부 주택과 누구나 집(집값의 6~20%를 내고 10년 간 임대 후 임대당시 정한 가격으로 분양하는 주택) 시범사업으로 각각 1만 가구가 공급된다. 청년·신혼부부 주택 부지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복합개발 부지와 공공기관이 이전하고 난 빈 땅을 활용하기로 했다. 누구나 집 시범사업으로는 경기도와 인천시, 광주시 등에서 후보지를 추천받았다.

기존 신도시와 앞으로 3기 신도시 활용

도도 높다. 당정은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리모델링을 활성화해 주택 추가 공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1기 신도시 정비를 통해 최대 10만 가구 이상 주택 수를 늘릴 수 있다고 본다. 아직 계획 단계인 3기 신도시(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시흥)에선 자족시설용지 용적률을 높이고 복합개발을 추진한다. 원래 자족시설 용지에는 사무·판매·의료시설 등이 들어야 하지만 주거 기능도 함께 갖추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TF에선 중장기적 택지 후보지 발굴도 논의한다. 부동산특위에선 도심 군(軍) 공항, 예비군훈련장, 교도소, 농업융수 공급 기능을 상실한 저수지 등을 후보지로 꼽았다. 구체적인 후보지로는 서울 강남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경기 안양시 안양교도소·의왕시 서울구치소 등이 거론된다.

박종화 기자 pbell@

‘공시가 8.4억’ 1주택자, 재산세 30만원 덜 내 60만 가구 혜택... ‘깎메우기’ 가격 오를 가능성

여당이 재산세 감면 기준을 기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상향하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기준도 ‘상위 2%’로 바꾸기로 하면서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줄어든 전망이다.

현재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은 올해 전국 주택의 3.7%(52만 가구)에 해당한다. 서울 아파트는 네 채 중 한 채가 종부세 부과 대상이다. 하지만 부과 기준을 상위 2%로 조정하면 부과 대상 주택이 52만 가구에서 26만 가구로 절반가량 줄어든다. 시장에선 공시가격 12억 원이 넘으면 전국 집값 기준으로 상위 2%에 드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한 세금 변화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 12억 원으로 상향하면 현재 시세 15억 원(공시가 9억5000만 원)

수준인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 전용면적 59㎡형 보유세는 302만 원에서 279만 원으로 23만 원 준다. 종부세 부과 기준이 상향되면서 종부세를 내지 않고 재산세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종부세 기준 상향과 함께 재산세 감면 기준도 높아져 세 부담을 덜는 집주인은 더 많아질 전망이다. 전국 기준으로는 약 60만 가구(서울 34만6000가구)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공시가격 8억4000만 원인 서울 동작구 대방동 ‘편한세상’ 아파트(전용 84㎡)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은 151만1000원을 보유세로 내면 된다. 기존 보유세는 183만1000원으로 32만 원가량 세금을 덜 내는 셈이다.

종부세 부과 기준과 재산세 감면 기준 조정으로 세금 혜택 기준선에 수렴하는 주택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 정용욱 기자 dragon@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다모았다 KB Pay

배우 윤여정님의
여우조연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KB 국민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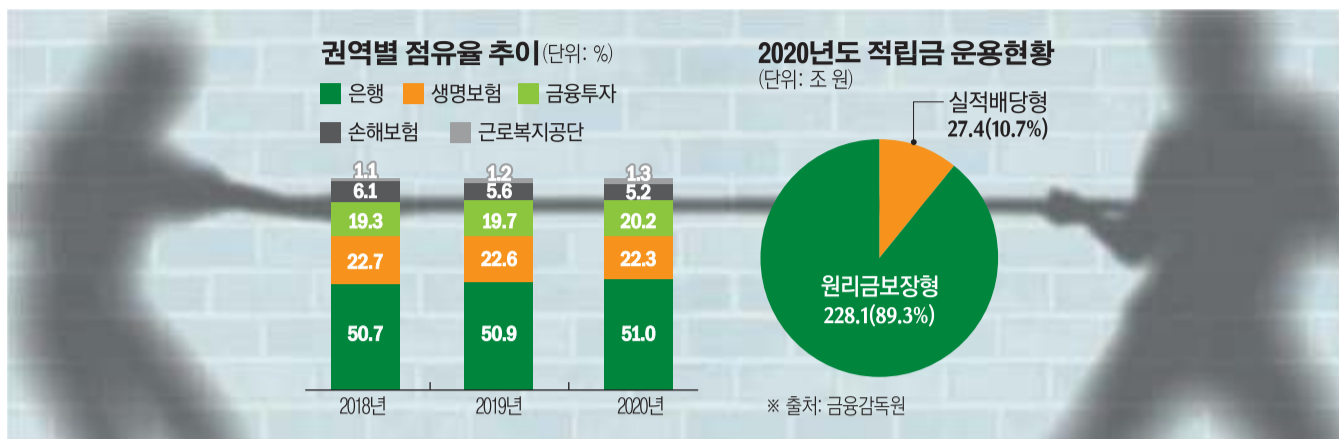
보험 “안정적 수급 먼저” vs 금투 “노후 위해 수익이 핵심”

디폴트옵션 놓고 대립각

원리금보장형 선택 놓고 줄다리기 전문가 “장기적 성과 가장 중요 필요따라 가입자가 옵션 선택을”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에 원리금보장형을 포함하는 문제를 두고 보험, 은행 업계와 금융투자업계 간 치열한 공방이 진행되고 있다. 보험, 은행업계는 디폴트옵션에도 원리금보장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금융투자업계는 디폴트옵션 도입의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반박한다. 여야 간 대립으로 이어지면서 디폴트옵션제도 도입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근퇴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퇴직연금 시장 점유율은 은행이 51%를 차지하고 있다. 생명보험(22.3%), 금융투자(20.2%), 손해보험(5.2%), 근로복지공단(1.3%) 순으로 퇴직연금 자산을



디폴트옵션 (사전지정운용제도)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따로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아도 금융사가 사전 결정된 운용 방법을 통해 투자 상품을 자동으로 선정해 운용하는 제도이다. 연금 운용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해 자산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때 별도의 선택 없이도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손해보험사는 전체 퇴직연금 자산의 98.7%를 원리금보장형으로 들고 있다. 생명보험(94.4%), 은행(86.2%) 역시 대부분의 자금을 원리금보장형으로 운용하고 있고, 금융투자업계가 72.5%로 비교적 낮은 원리금보장형 비중을 보였다.

최근 디폴트옵션 도입에 소음이 들리는 이유는 원리금보장형 도입 때문이다. 보험, 은행업계는 원금을 잃지 않는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가입자도 있는 만큼 디폴트옵션에 원리금보장형을 넣어야 한다는 입장

이고, 금융투자업계는 그렇게 되면 디폴트 옵션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반대하는 입장이다. 디폴트옵션을 도입한 국가 중 원리금보장형을 넣은 나라는 일본뿐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는 퇴직연금을 원리금이 보장되는 안전자산에 넣고 있는데, 디폴트옵션이 도입되면 고객의 자금이 빠져나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금융투자업계는 디폴트옵션 도입의 핵심이 ‘수익률’인 만큼 원리금 보장상품을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황세은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디폴트옵션 제도는 주식과 펀드를 중심으로 가져가면서 수익률을 높여보자는 취지”라면서 “장기적 성과가 중요한 퇴직연금에서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서라도 수익률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폴트옵션을 도입한다고 해서 원리금 보장을 원하는 가입자의 선택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가입자가 원하면 원리금 보장상품으로 운용지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강민호 금융투자협회 연금지원부장은 “오랜 기간 적격 연금상품을 운용하면서 충분한 수익이 발생하고, 이를 지키고 싶은 가입자는 언제든지 디폴트옵션을 적용 받지 않고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지시 변경이 가능하다”면서 “디폴트옵션은 ‘의무’가 아니라 기존 DC에서 가입자의 선택지를 확대한 옵션”이라고 설명했다.

은행 보험업계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노후 소득에 대한 안정적인 수급권을 확보하려면 원리금 보장형 상품도 포함돼야 한다고 반박한다. 약세장에서는 원금 손실도 걱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의 경우 2018년 퇴직연금 평균수익률이 -4.5%까지 떨어졌다.

보험연구원은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논의와 고려사항’이란 보고서에서 “가입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퇴직연금 자산이 실적배당형에 투자돼 손실이 발생할 경우,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가입자가 디폴트옵션 선택 시 원리금보장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안정성과 수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디폴트옵션제도 도입을 위한 근로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 중이다. 19대 국회 때부터 발의된 법안이지만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법안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다음 달 초 3개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대상은 디폴트옵션을 도입해 된 구성상품에 실적배당형만을 넣어야 한다는 안호영·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건과 실적배당형 외 원리금보장형도 포함해야 한다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안건이다. 손영기 기자 eom@

KYOBO 교보생명

인생의 꽃길만을

멋지게 디자인된 미래를

맞잡는 일상을

친구같은 든든함을

활짝 핀 꽃길만을 선사합니다. 바라던 인생을 디자인해 드립니다.

맞잡는 일상을 대접합니다. 친구처럼 당신의 곁을 지킵니다.

늘 고객 가까이에서 고객의 든든한 편이 되는 사람.

바로, 교보생명 FP입니다.

든든한 내편 하나

교보생명 FP

해외 사례 보니

“손실 나도 본인 책임’ 분위기 조성돼야”

디폴트 미도입 韓 포함 4개국뿐 실적배당형 美·호주 연 9% 수익

디폴트옵션은 해외 선진국 중 상당수가 이미 도입한 제도다. 다만 나라별로 상황이 다르다. 미국, 호주는 디폴트옵션에 실적배당형 상품만 두고 있지만 일본에선 원리금보장형까지 포함했다. 디폴트옵션의 국내 도입을 앞두고 국내에 맞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디폴트옵션으로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할 경우 장이 나쁠 땐 마이너스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것에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

2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보고된 20개 국가 중 디폴트옵션 미도입국은 한국을 비롯한 에스토니아, 체코, 슬로바키아공화국 등 4개국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3.8%로, OECD 평균 14.8%를 크게 상회한다. 노후 대비를 위한 퇴직연금 제도 마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미국은 1981년 ‘401K’라고 불리는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디폴트옵션을 넣었고, 호주는 1992년 퇴직연금에 이 제도를 선택했다. 두 나라는 실적배당형으로만 이뤄져 있다. 덕분에 연평균 수익률은 7~9%(2013~2019년) 수준으로 집계됐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의 경우도 퇴직연금펀드 수익률이 2008년, 2018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적이 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내는 것은 확실하지만 해외 선진국처럼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도 본인 선택에 따른 책임으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

다”고 말했다.

일본은 2018년 1월 디폴트옵션을 도입하면서 실적배당형뿐만 아니라 원리금보장형도 추가했다. 마이너스 수익률에 대한 불안감이 컸기 때문이다. 전체 자금의 75%가 원리금보장형에 들어가 있고, 최근 7년(2013~2019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2.31% 수준에 그쳤다.

디폴트옵션의 설정 주체도 나라마다 다르다. 설정 주체는 향후 퇴직연금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책임 주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디폴트옵션을 제도화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볼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 논의 중인 개정안에는 기업(사용자)이 아닌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이 디폴트옵션의 설정 주체다.

미국 기업연금에서는 디폴트옵션의 설정 주체가 기업이다. 대신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실적배당형의 디폴트옵션을 설정한 기업에 손실 면책을 부여한 연금법 개정이 제도 확산의 기폭제가 됐다. 한국에서도 퇴직연금사업자의 손실 면책이 보장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계약형 지배구조인 우리 퇴직연금제도에서 호주의 ‘마이슈퍼(MySuper)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적다. 호주는 단일 디폴트옵션인 마이슈퍼를 두어 투자전략을 단순화하고 가입자가 디폴트옵션 상품 비교를 용이하도록 표준화된 상품 설명서를 제공하고 있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제는 제도 도입을 전제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기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체계와 관리 감독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영기 기자 eom@

재정건전성 비상인데, 임기 끝까지 돈 풀겠다는 文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제

“내년까지 확장재정기조 유지 필요
추가 재정투입 가능성도 열어둬야”
추경 편성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국가채무비율 높아져 기재부 ‘고민’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확장적 재정기조 유지를 주문함에 따라 정부 곳간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게 됐다. 당장 국가채무비율 등 재정건전성 관리가 숙제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확장재정을 요구하는 의견과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동시에 방역 상황과 경제여건 변화에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박진희·타일러와 P4G 특별대담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배우 박진희, 방송인 타일러 라쉬와 P4G 정상회의 특별 대담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담에서 P4G 서울 정상회의 및 탄소중립, 식량안보 및 기후변화, 제로웨이스트 실천 노력 등을 주제로 지구를 위한 대화를 나눴다. 사진제공 청와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추가 편성 가능성을 시사했다.

올해 한 차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8.2%까지 치솟은 상황에서 내년까지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재정 당국 입장에서 큰 부담이다. 늘어나는 재정지출

만큼 재정수입이 확대되지 않으면 그 격차 만큼 채무를 늘릴 수밖에 없어서다. 더욱이 5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목적으로 2차 추경이 편성되면 국가채무비율은 연내 50%를 돌파할 수도 있다. 같은 이유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경기 회복에 맞춘 단계적 재정지출 정상화를 권고하고 있다.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다. 문 대통령은 “확장재정 운용으로 경제가 회복되면서 올해 세수가 큰 폭으로 회복돼 오히려 재정건전성 관리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이런 재정 투자의 선순환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월에는 여당 지도부와 오찬에서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지원

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상 대통령 임기 말 편성되는 예산안은 해당 정권에서 사용 가능한 예산이 아니라 점에서 재정지출 증가율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거나, 문 대통령은 탄핵 정국에서 선출된 대통령이란 점에서 특수성을 지닌다. 기존에는 대통령 선거가 12월 열리고 이듬해 1월부터 대통령직 인수 작업이 진행됐지만,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5월 임기가 시작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가동 전인 내년 1분기까지 국정운영을 책임진다. 따라서 문 대통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두고 선심성 예산을 반영한 예산안 편성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관건은 기재부의 의지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선 국회가 임의로 총지출을 확대할 수 없어서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기재부는 “2022년도 예산안 및 2021-2025년 중기총지출 증가율은 결정된 바 없으며,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원조 친노’ 이광재 대권 도전

‘이재명과 양강구도’ 자신...당내선 “이미 끝났는데”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여권 1강 이재명 경기지사서와 ‘양강구도’를 자신하며 대권 도전을 밝혔다. ‘우광재’라 불리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심복으로서 원조 친노인 만큼 당내 지지세를 끌어모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이광재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회관에서 열린 대통령 출마 선언식에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의원은 여의도 중 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공적자금과 대기업 사내유보금을 동원해 창업국가를 만들고, 토지를 공공비축재로 전환해 일자리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비전을 내세웠다. 후보주자인 만큼 9월 코앞으로 다가온 대선후보 경선에서 이길 방도가 있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미래를 이야기하고 통합을 이야기하는 후보가 적다”며 자신의 차별성을 자신했다.

전재수 의원은 “민주당 대선후보 중 결국 돈 쓰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후보가 없다”며 “이 의원은 기술혁명과 창업국가, 혁신성장 등에 대해 상당히 담론을 주도하고 있다. 이

지사는 기본을 이야기하는데 미래 이야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 이 시간 이후 이 지사와 양강구도로 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이 지사가 견고한 1강으로 자리잡은 상황이라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다. 당의 한 관계자는 “이 지사의 견고한 지지율로 이미 많은 의원과 당원들이 넘어간 상황이고, 이해찬 전 대표도 이 지사의 적극적인 구애로 민주평화광장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며 “이미 다 끝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평화광장 공동대표이자 이해찬계인 조정식 의원도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이전 대표가 이 지사를 지원하고 있음을 공언한 바 있다. 이전 대표는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를 맡아 국정파트너로 일했던 친노·친문 좌장격이다. 자신의 정치 기반인 광장의 명맥을 이어받는 민주평화광장은 이 지사의 전국조직으로 평가받는다. 원조 친노라는 이 의원의 경쟁력이 무력화될 수 있는 지점이다.
김윤호 기자 uknow@

김오수 ‘데스 노트’에 올린 정의당

“전관예우 특혜 누려 자격 미달”

정의당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그동안 여당에 우호적이었던 정의당조차 소위 ‘데스 노트(임명 불가)’에 김 후보의 이름을 올린 것이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청문회에서 모두 확인했겠지만 김 후보자는 관행을 이유로 부적절한 전관예우의 특혜를 누렸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후보자 본인이 전관예우로 수임한 사건이 사기성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를 부실 판매한 은행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비판했다. 또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검찰개혁

과 수사의 중립성, 독립성에 대한 뚜렷한 소신도 보여주지 못했다”며 “이를 종합할 때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울 검찰총장으로서는 자격 미달이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26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으나 야당에서 정치적 중립성 및 전관예우 논란을 문제 삼아 보고서 채택 합의를 하지 못했다. 이날 저녁 속개 예정이었던 청문회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간 충돌로 파행으로 이어졌고 국회는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기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31일까지 재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 상태다.
하유미 기자 jscs508@

늘 한 자리에서
한결같이 동네를 지켜온
작고 오래된 가게들이 있습니다

낮엔 쉬어 가라며 길을 내어주고
밤엔 조심히 가라며 길을 비춰주던
그 가게들을,
이젠 우리가 지켜줄 차례입니다

NH농협은행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NH 소상공인 컨설팅 프로그램

소상공인들의 사업 경영 및 운영 시 발생하는 어려움과 고민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NH농협은행은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을 무료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장임지 및 상권, 고객 분석 | 세무관리 및 절세전략 | 소상공인 관련 법령 | 홍보 및 유통 판로 확장을 위한 마케팅 교육

* NH 소상공인 컨설팅 프로그램은 가까운 NH농협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 20202981(2020.10.12~2021.12.31) * 관리부서: NH농협은행 기업고객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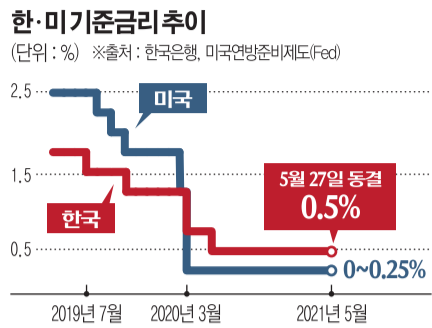
‘연내 금리 인상’ 시사한 이주열

“연준보다 빠를수도” 긴축 첫 언급
올 성장률 4%·내년은 3% 전망

“(기준금리 인상을) 서두르지 않아야 하지만 늦지도 않아야 한다. 당분간이라는 표현이 가까운 장래지만 조정 시기를 미리 못 박는 것 같아 표현하기 어렵다. 조금만 더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열린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연 0.50%로 동결 결정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사실상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총재는 “연준(Fed)이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국내 여건에 맞게 통화정책을 조정하면 그만큼 우리로서는 여지가 훨씬 더 넓다”며 미국 연준보다 이른 시기에 금리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서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데 따른 자신감으로 풀이된다.

이날 한은은 경제전망치를 대폭 상향 조



정했다. 경제성장률은 올해 3.0%에서 4.0%로, 내년 2.5%에서 3.0%로 올려 잡았다. 소비자물가도 올해 1.3%에서 1.8%로 상향조정했다. 내년 물가만 기준과 같은 1.4%를 예상했다. 성장률 1%포인트대 상향조정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말 이후 처음이다. 한은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세가 빨리 진정되고, 백신 접종이 늘어 정부가 예상하는 11월 집단면역 달성을 앞당기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4.8%까지 넘볼 수 있다고 봤다. 감염병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백신접종이 늦어지더라도 3.4% 성장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이 총재의 발언에도 채권시장에는 되레

비둘기파(통화완화파)적이었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전날까지 금통위원 중에서 인상 주장을 하는 소수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바싹 긴장했던 게 선반영된 탓이 크다. 또 이 총재의 발언에도 비둘기파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도 여전히 많았다는 게 영향을 미쳤다.

금리인상 조건으로 경기회복을 1순위로 꼽았다는 점도 금리인상이 늦어질 것이라는 입장에서는 힘이 됐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경기개선과 금융불균형 관련 추가 재료가 유입될 경우 (인상)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진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금리인상 시점은 기존대로 내년 7월이 유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패파적(통화긴축적) 언급도 여럿 있었던 만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데에는 대체로 동의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포인트나 올린 4%로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장일치 동결을 한 것에 주목했다. 김남현 금융전문기자 kimnh21c@

“美 기후 대응책에 韓 수출 악영향”

한경연 보고서 “전기차 부품 등 대미 직접투자 늘려야”

미국 온실가스 대응 정책의 변화가 한국 수출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미 직접투자’를 제안했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7일 김영덕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에게 의뢰해 분석한 보고서 ‘바이든 행정부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기초와 우리 기업의 대응’을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자국 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고 탄소효율이 낮은 제품의 수입을 억제하려는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이 탄소경쟁력 우위를 앞세워 ‘탄소 국경 조정’과 같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사용하면 중국의 대미 수출은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는 일종의 탄소 관세를 말한다.

미국이 탄소 집약적 재화를 대상으로 수입 규제를 강화하면 한국 기업들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보고서는 1차 금

속, 화학, 정유 산업 등이 대미 수출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대미 직접투자 확대가 제시됐다. 탄소집약도가 높은 제품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과 미국의 자국산 소재·부품 중심 정책이 맞물리고 있는 만큼 대미 직접투자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미국 중점 전략산업인 친환경 자동차와 관련된 자동차 부품, 반도체, 이차전지 등의 제품이 대표적 사례가 될 것으로 봤다. 이어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이 ‘그린뉴딜’ 정책 시행을 예고한 점을 고려해 한국 기업들도 탄소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국 정책 전환은 한국 전기차 관련 산업에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내연기관 부품 기업들이 전기차 부품 사업으로 전환하고 대미 직접투자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대영 기자 kd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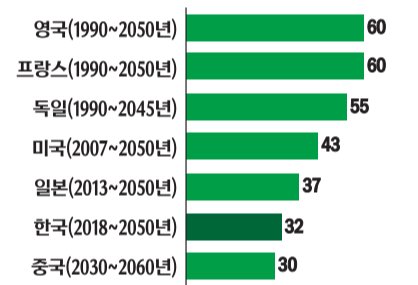


네이버와 카카오 앱을 이용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잔여 백신 조회와 예약이 가능해진 27일 세종시의 한 종합병원에서 관계자가 관련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병원 측은 이날 2명의 시민이 ‘잔여 백신’을 예약 접종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50년 탄소중립 위해 원자력 활용해야”

전경련 “선진국, SMR 적극 추진”

주요 국가 탄소중립 달성기간 (단위: 년)



※ 출처: 전경련경제인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미국, 영국 등 선진국처럼 소형모듈원자로(SMR)와 같은 원자력 발전을 활용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SMR는 증기발생기, 냉각재 펌프, 가압기 등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한 소형원자로다. 공장 제작과 현장 조립이 가능해 차세대 원자력 발전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경련에 따르면 영국과 프랑스는 1990년부터 2050년까지 60년에 걸쳐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은 1990년부터 2045년까지 55년 동안 탄소중립을 추진 중이다. 미국은 2007년, 일본은 2013년부터 탄소중립을 추진해 왔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8년을 기준으로 2050년까지 32년 동안 탄소중립을 달성할 계획이다. 선진국보다 짧은 기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석유화학, 정유, 철강 등 탄소배출량이 많은 에너지집약형 제조업 주도의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탄소중립의 걸림돌로 꼽힌다.

전경련은 주요 선진국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원자력 발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을 통해 원전을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을 밝히면서 SMR에 대한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이미 운영 중인 원전의 수명도 연장하고 있다. 중국이 지난달 발표한 제14차 5개년 계획에는 2025년까지 원자로 20기를 신규 건설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전경련은 원자력 발전을 활용하지 않으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원자력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대영 기자 kdy@

막오른 오세훈표 재개발...사업득실 놓고 계산기 두들기는 후보자들

‘공공이나 민간이나’ 행복한 고민

신길 16구역 등 정비구역 해제지역 선택지 늘자 乙서 甲으로 위치 바뀌어 난개발로 신축건물 난립뎀 힘들어 노후건물 비중 3분의 2 넘어야 추진

재개발 사업 후보지가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사업 방식을 두고 ‘공공’과 ‘민간’, 선택지가 늘어난 덕이다. 일부 지역에 선 방식별 사업 득실을 놓고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옛 ‘신길16구역’. 이 지역은 재건축 사업을 두고 오랫동안 몸살을 앓았다. 2007년 신길 재정비촉진지구(신길뉴타운) 중 하나로 지정됐지만 주민 갈등을 겪다 2014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이후 이 지역에선 재개발 추진 움직임이 꾸준히 일었다. 지난해에도 공공 재개발 사업을 신청했지만 지정이 부류됐다. 대안 없이 재개발 사업이 부침을 겪으면서 주민 주거 여건은 크게 악화됐다.

그런데 이 지역에 새로운 길이 열렸다. 서울시가 26일 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발표

하면서다. 서울시는 주거정비비수제(노후도·주민동의율 등을 평가해 일정 점수가 넘어야 재개발 구역을 지정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정비구역 지정에 필요한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필요한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줄여 2025년까지 1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게 서울시 구상이다. 서울시는 신길12구역 같은 재개발 해제 구역에서 사업을 재추진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선택지가 늘면서 재개발 해제 구역은 을(乙)에서 갑(甲)으로 신분이 상승했다. 그 간엔 재개발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는 길이 중앙정부 주도 공공재개발이나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공공 주도로 도심역세권·저층주거지·준공업지역에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밖에 없었지만 이젠 자체적으로 민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서다.

신길16구역에서 공공재개발을 추진했던 신대남 씨는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길이 여러 개 생겨서 감사하다”며 “공공재개발과 민간재개발을 함께 준비할 것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충분한 인센티브를 안 주면 민간사업으로 틀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재개발 해제구역이 서울시 규제 완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건 아니다. 재개발 구역 해제 이후 난개발이 진행되면서 재개발 사업이 갈림길에 선 곳도 있다. 규제 완화 이후에도 노후 건물 비중이 구역 내 3분의 2 이상을 넘어야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재개발 사업 무산 이후 신축 건물이 난립한 지역은 이 기준을 넘어서기 힘들다.

서울 성북구 장위동 옛 ‘장위12구역’에서 재개발 재추진을 준비하는 최연숙 재개발재추진위원장은 “서울시가 그동안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신축 빌라가 난립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 최 위원장은 “민간 재개발이 공공재개발보다 사업 속도가 빠르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공공재개발이 안 되면 민간재개발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재개발 사업지 확보를 두고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경쟁을 벌일 것인 전망에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민간재개발과 공공재개발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주민들로 하여금 더 적합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드리는 옵션”이라고 말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작년 4분기 2030 일자리 9만개 사라졌다

40대 이상 전 연령대는 증가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의 일자리 충격이 20·30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27일 발표한 ‘2020년 4분기(11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서 지난해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가 1958만 9000개로 전년 동기보다 50만 3000개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반적으로 코로나19 3차 유행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이 회복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제조업(-6만 6000개), 숙박·음식점업(-5만 1000개)은 감소를 지속했으나, 공공행정(24만 5000개),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5만 8000개)에 선 큰 폭으로 늘었다.

고용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연령대로는 40대 이상은 전 연령대에서 일자리가 늘었지만 20대 이하와 30대에선 각각 6만 8000개, 2만 3000개 감소했다.

20·30대 고용난의 주된 배경은 개인기업체를 중심으로 한 신규채용 위축이다. 조직형태별로 정부·비법인단체와 회사 외 법인은 각각 30만 2000개, 21만 3000개 늘었으나, 회사법인은 3만 7000개 증가에 그치고, 개인기업체는 4만 8000개 감소했다.

회사법인과 개인기업체는 신규채용의 각각 54.8%, 20.5%를 담당하는 조직형태로, 두 조직형태에서의 일자리 감소는 곧 신규채용 위축을 의미한다. 개인기업체의 경우 숙박·음식점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수가 3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국민과 함께하는 일자리 찾기
KBGoodJob

KB굿잡과 함께 지금, 성공취업 ON

2021 제1차 KB굿잡 온택트 취업박람회

2021.5.31^월 - 6.11^금

<https://kbgoodjob.kbstar.com>

검색창에 **KB굿잡** 🔍 검색해보세요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1212-1호(2021.05.18), 광고물 유효기한 2021.06.11까지

KB 국민은행

‘친환경 펀드’에 이사 자리 내준 ‘엑손모빌’ 석유공룡 ‘탈탄소 압박’ 거세진다

엔진넘버원 “기후위기 대처” 촉구 기관투자자 지지로 의결권 확보 석유 중심 경영전략 수정 불가피



대런 우즈 엑손모빌 최고경영자. 로이터연합뉴스

글로벌 석유 메이저들이 더 거세지는 탈탄소 압박에 직면했다. 세계 최대 석유회사 중 하나인 미국 엑손모빌이 소규모 친환경 행동주의 펀드인 ‘엔진넘버원(Engine No. 1)’과의 전쟁에서 패배했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엑손모빌 주주들은 이날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헤지펀드 엔진넘버원이 지명한 인사 2명을 표결을 통해 이사로 선출했다.

엔진넘버원이 보유한 엑손모빌 지분은 0.02%에 불과하지만, 기후변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회사의 변화를 재촉해야 한다고 설득해 기관투자자들의 지지를 얻었다. 엑손모빌은 화석연료를 중시하는 기존 경영전략의 변경을 강요당할 가능성이 커졌다.

엑손모빌의 최종 이사회 구성원은 총 12명인데, 현시점에서 나머지 표결 집계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 엔진넘버원이 추천한 총 4명의 인사 가운데 추가로 엑손모빌 이사

가 나올 수도 있다는 뜻이다.

미국 기업의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해 목소리를 높여온 엔진넘버원은 지난해 말 엑손모빌 주식을 취득했다. 이 헤지펀드는 향후 화석연료 수요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점차 투자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영진에 쇄신을 촉구했고, 주주제안에서 4명의 이사를 추천했다. 투표에서 결국 최소 2명의 이사를 입성시키는 데 성공, 경영에 대한 관여를 강화하게 됐다.

엑손모빌 2대 주주인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엔진넘버원의 추천 이사 4명 중 3명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 비교적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아온 엑손모빌은 환경 대책 분야에서 깊이 있는 대응을 요구받게 됐다.

CNN은 “현대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최대 석유회사가 행동주의 투자자들로부터 실질

적인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엔진넘버원은 그동안 미국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목소리를 높여왔는데, 석유·가스 등 화석에너지 부문에서 주주 행동에 나선 것은 처음이었다. CNN은 “세계적으로 화석연료에서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시점에서 엔진넘버원이 ‘역사적 승리’를 거뒀다”며 “국제에너지기구(IAEA)가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해 석유와 가스 시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하는 가운데 석유메이저 엑손모빌이 적어도 2석의 이사 자리를 빼앗겼다는 것은 다른 화석연료 회사에도 커다란 메시지를 던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소 저감 요구 압박을 받는 것은 엑손모빌뿐만이 아니다. 네덜란드 법원은 유럽 최대 석유기업인 로열더치셸에 대해 기후변화에 책임이 있다며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5%로 감축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회사 측은 항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온난화 가스 감축의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부과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석유 산업에 대한 탈탄소 압력이 더욱 거세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변호선 기자 hsbun@

가상화폐 캐려다 잇단 정전 이란, 너 달간 ‘채굴 금지령’

“전력망 위협” 中·터키도 규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26일 각료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가상화폐가 국가 전력망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이 현실로 다가왔다. 이란이 수도 테헤란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발생한 연이은 정전 사태에 가상화폐 채굴 금지라는 칼을 빼 들었다.

26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채굴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금지령은 대통령 발표와 함께 발효됐고, 9월 22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로하니 대통령은 과거에도 가상화폐 채굴을 거부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왔는데, 최근 몇 달간 테헤란과 다른 대도시에서 하루에도 수차례 정전이 발생하자 결단을 내렸다.

이란 정부는 정전 원인으로 천연가스 부족과 수력발전이 지장을 준 장기적인 가뭄, 급증한 비트코인 채굴 등을 꼽았다. 특히 정부 관계자는 “비트코인 채굴에 소비되는 에너지 대부분은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채굴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1월에는 이란 경찰이 불법으로 채굴하는 비트코인 채굴기 5만 개를 압수하기도 했다.

이란은 비트코인 채굴 상위 10개국 중 하나로, 블록체인 분석업체 엘립틱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까지 전 세계 채굴량의 4.5%를 이란이 책임지고 있다. 동시에 이란에서 채굴되는 비트코인의 85%가 불법인 것으로 전해진다.

전 세계 비트코인의 약 70%를 채굴하는 중국도 최근 가상화폐 채굴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 지

난중 중국은행협회와 중국인터넷금융협회, 중국지불청산협회 등 주요 금융기관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은행과 온라인 지급 업체들이 고객에게 가상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러 중국 부총리가 가상화폐 거래와 채굴과 관련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자 중국계 가상화폐 거래소 후오비가 중국에서의 투자·채굴 서비스 일부를 중단했고, 네이멍구자치구는 전날 가상화폐 채굴 관련 재제안을 발표하는 등 제재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중동에서 가상화폐 거래량이 가장 많은 터키는 4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상품·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가상화폐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도 했다.

테슬라도 12일 환경 부담을 이유로 자사 차량 결제수단으로서 비트코인 사용을 중단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우리는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 과정에서 석탄 연료 사용이 급증하는 것을 우려한다”며 “우리는 비트코인이 유망한 미래를 갖고 있다고 믿지만, 이것이 환경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대명 기자 kodae0@



말레이, 코로나 신규 감염 인도 추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인근 사일람에 있는 코로나19 검사 센터에서 27일(현지시간) 의료진이 한 소년에게 코로나 검사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최근 7일 평균 하루 확진자가 100만 명당 205.1명으로, 코로나 확산 진앙지인 인도의 150.4명을 넘어섰다. 전날 하루 신규 확진자 수도 사상 최고치인 7478명이었지만, 최소 1회 백신 접종률은 5%에 불과한 상황이다.

사일람/AP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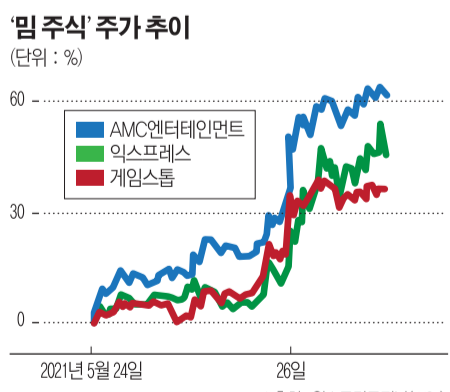
게임스톱·AMC엔터 폭등 ‘밈 주식’ 랠리

美 가상화폐 꺾이자 주식시장 귀환 AMC 하룻새 2200만달러 순매수

연초 뉴욕증시를 뜨겁게 달궜던 ‘게임스톱 사태’가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해 증시는 물론 소셜미디어에서 화제를 몰고 다녔던 ‘밈(Meme·온라인에서 유행하는 사진이나 영상) 주식’의 주가가 다시 들쭉이고 있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게임유통업체 게임스톱과 영화관체인 AMC엔터테인먼트, 의류소매업체 익스프레스 주가가 이번 주 들어 최소 37% 이상 폭등해 수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하루에만 게임스톱은 15.82% 뛰었고, AMC는 19.20%, 익스프레스는 25.89% 각각 올랐다.

WSJ는 “이들 종목의 급등세 배경에는 뚜렷한 호재 대신 온라인 커뮤니티 레드 포럼이나 디스코드(Discord),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한 개인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있



다는 점에서 올해 1월 광풍보다는 덜하지만 비슷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밈 주식’이 돌아온 주요 원인으로 가상화폐의 추락을 지목하고 있다. 이탈 들어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이 다시 주식시장으로 귀환, 급등락 폭이 큰 ‘밈 주식’에 다시 손을 대기 시작한 영향이라는 것이다. 대표적인 종목이 AMC다. 반다리서치의 데이터에 따르면

전날 하루에만 2200만 달러(약 246억 원)가 넘는 개인투자자 순매수세가 몰렸다. 이는 올해 일 평균 순매수액(900만 달러)의 두 배를 넘는 규모다.

이들 밈 주식의 주가 하락세에 베팅한 일부 헤지펀드는 손실을 봤다. S3파트너스에 따르면 25~26일 게임스톱에 쇼트(매도) 포지션을 취했던 투자자들은 7억2140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하게 됐다. 같은 기간 AMC에 대한 쇼트 포지션 역시 약 5억4300만 달러 손실을 보게 됐다. 이 역시 게임스톱의 하락세에 베팅했던 월가 유명 헤지펀드들이 개인의 매수세에 주가가 상승하자 막대한 손실을 봤던 1월과 유사한 흐름이다.

S3파트너스의 예측분석 책임자인 이오르 두자뉴스키는 “두 종목 모두 현재 ‘쇼트스퀴즈(Short Squeeze)’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진단했다. 쇼트스퀴즈는 쇼트 포지션을 커버하기 위해 혹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테슬라 “삼성 반도체 선결제하겠다”

부품확보 위해 선구매 나서, 파운드리 인수도 고심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반도체 품귀 현상에 애가 타는 모양새다. 삼성전자와 대만 TSMC에 돈을 먼저 주겠다며 선구매를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소식통을 인용해 테슬라가 반도체 부품을 확보하기 위해 선구매라는 비정상적인 수단을 취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대만에서 생산되는 최신 칩을 주로 요청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에 따르면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여러 자동차업체는 공장 문을 닫아야 했다. 그 여파로 지난해 매출에도 타격을 입었다. 올해 일부 공장이 가동을 재개했지만, 피치는 올해 업계 전체 매출의 5%에 달하는 손실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일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업체)와 자동차업체 사이에서 고정된 가격에 전용 칩 생산을 거래하는 경우가 조금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노무라증권의 CW 청 애널리스트는 “현재 반도체 부족 상황을 고려할 때 삼성은 수명 주기가 긴 칩을 활용하는 테슬라 같은 기업에 전용 부품을 제공할 수도 있다”며 양사 간 거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FT는 삼성에 정당한 관계자 말을 인용해 회사가 일부 생산라인을 테슬라에 제공해왔고 이와 관련해 추가 논의를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TSMC 역시 테슬라의 거래 고려 대상이다. 다만 TSMC는 그동안 별도로 물량을 빼달라는 고객사들의 요청을 거부해 온 터라 가능성이 크진 않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TSMC가 이렇게 한 것은 퀄컴이 자주 주문을 변경해 위협에 대처하는 차원에서 2014년 실시했던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한 관계자는 “TSMC는 특정 기업과의 이런 거래에 그다지 관심이 없다”며 “소규모 파운드리나 자동차 업체들과의 협업이 테슬라에는 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테슬라는 파운드리 인수도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급망 컨설팅업체인 세라프컨설팅의 엠브로스 콘로이 최고경영자(CEO)는 “테슬라가 처음에는 부품을 사들이겠지만, 파운드리 인수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운드리 인수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테슬라와 같은 자동차 제조업체에는 너무 먼 일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고대명 기자 kodae0@

금호타이어 채권단, 11년 만에 주식 매각 시동

7월6일부터 지분 절반 처분 가능 '블록딜' 등 거론
우리·산업은행 등 8개 금융사, 주식 22.14% 보유
취득가 기준 3318억... "더 가지고 있을 이유 없어"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11년 만에 주식 매각에 나설 전망이다. 오는 7월부터 보유 주식의 절반을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기 때문이다.

27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우리은행, KDB산업은행 등을 비롯한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7월 6일부터 매년 50%씩 보유 주식을 매각할 수 있다. 채권단이 보유한 지분은 총 66,368,844주(22.14%), 취득가액 5000원으로 환산하면 3318억여 원이 시장에 풀리는 셈이다.

◇7월 주식 처분제한 풀려 매각에 무게 = 채권단은 2010년 11월, 주당 5000원에 금호타이어에 빌려준 4000억여 원을 출자 전환했다. 2009년 1월 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신청하고 2년이 채 안 된 시점에 결정된 사안이다. 채권단은 10년이 넘도록 20%를 웃도는 지분을 보유 중이다. 지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우리은행(7.78%)이다. 이어 산업은행(7.43%), KB국민은행(2.29%), 신용보증기금(1.40%) 등이 금호타이어 지분을 갖고 있다. 채권단이 올해부터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것은 현재 금호타이어의 대

주주인 더블스타가 3년 전에 회사를 인수하면서 맺은 주주 간 계약 체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채권단과 더블스타 측은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5년간 주식을 팔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협의 과정에서 채권단이 주식 처분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양 측은 3년 경과 시점부터 지분을 매각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 산업은행의 2020년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처분제한기한은 2023년 7월 6일이지만, 실질적으로 올해 7월부터 주식을 팔 수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채권단 내에서는 지분을 유지하는 것보다 매각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10년이 넘도록 보유한 만큼 이익 실현이 가능한 시점에서 지분을 털어내고 싶다는 속내다. 지분 매각은 대주단 협약에 따라 채권단협의회의 협의를 통해 공동 의사결정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지분 매도 방식으로 블록딜(주식 대량 매매), 더블스타의 지분 매입 등을 예상한다.

◇주가 하락 우려, 블록딜 가능성 높아

= 채권단의 지분을 매각하는 방법 중 실현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은 블록딜이다. 블록딜은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매도자가 사전에 매도 물량을 인수할 매수자를 구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장이 끝난 이후 지분을 넘기는 거래를 뜻한다. 더블스타가 당초 지분 매각 유예기간을 둔 것도 채권단의 대량 매도에 따른 주가 하락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에 채권단도 매도 과정에서 주가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할 가능성이 크고, 그 방안이 블록딜인 것이다. 다만 최대주주가 더블스타인 상황에서 경영권을 확보할 수도 없는 금호타이어의 지분을 통으로 사 자발적으로 2대 주주가 되겠다는 매수자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방안은 더블스타가 채권단 지분을 사들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이미 45%에 달하는 지분을 확보한 더블스타가 비용을 추가로 들여 채권단의 지분을 살 가능성은 작다. 채권단 관계자는 "채권단 지분에 따라서 경영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어서 고민되는 부분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 외 지분을 쪼개 파는 방안도 거론된다. 금호타이어의 주가가 채권단의 최초 취득가액인 5000원을 넘을 시 지분을 쪼개 파는 방식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채권단 관계자는 "블록세일이나 매각하는 경우가 있다. 적은 물량은 아니지만 원



천적으로 불가능한 물량은 아닌 것 같다"며 "주가 상황을 고려해서 진행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초 대출이었던 부담 가는 차입금을 출자전환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 주식을 갖고 있을 이유는 없다"며 "당초에 출자전환한 게 커버(cover)되는 수준이라면 매각을 결정하고 그 상황이 안된다면 이익실현 시점, 즉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채권단 관계자 역시 "매각 의사는 있으나 채권단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방법은 결정될 것"이라며 "다양한 매각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김유진 기자 eugene@ · 김범근 기자 nov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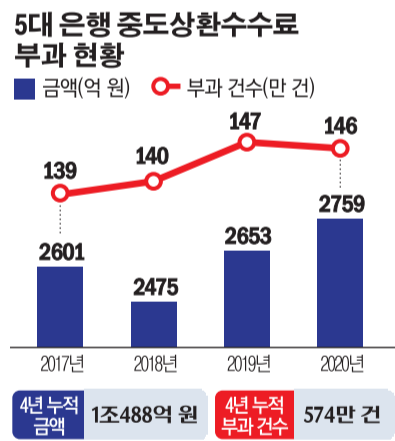
시중銀 중도상환 수수료 수입 4년간 1조

매년 2000억 훌쩍...저금리 갈아타기 장애물
국민은행 2702억 최고, 농협은행 1766억 최저

5대 시중은행이 대출을 만기보다 일찍 갚을 때 물리는 중도상환수수료로 4년간 1조 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이 경제적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운영중인 중도 상환수수료는 차주(돈을 빌린사람)에게는 낮은 이자의 대출로 갈아타는데 장애물이 된다. 결국 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로 큰 수익을 얻고, 차주는 가계대출 상환에 허덕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27일 국회 정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형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수입(가계·개인사업자·법인 합계)은 1조488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만 2700억 원이 넘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2601억 원, 2018년 2475억 원, 2019년 2653억 원,



2020년 2759억 원으로 매년 2000억 원을 넘겼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2702억 원, 하나은행이 2260억 원, 우리은행이 1886억 원, 신한은행이 1874억 원, NH농협은행이 1766억 원 순이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으려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해약금이다. 수수료를 받는 이유는 대

출금을 중도상환할 경우 은행이 입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수단이다. 하지만 차주 입장에서 대졸 갈아타기를 막는 대표적인 장애물로 꼽힌다. 만기까지 남은 기간과 대출 잔액을 따져 부과하는데 통상 대출금의 1% 안팎이며, 대출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사라진다.

이 수수료를 낮추면 금리 등의 측면에서 조건이 더 좋은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기가 쉬워진다. 때문에 차주가 금리가 조금이라도 더 낮은 대출로 갈아타기 쉽도록 금융당국이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를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은 빠르게 증가하는 가계대출 상환에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은행별 중도상환수수료율을 비교해보면, 고정금리로 가계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신한은행 0.8%, KB국민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NH농협은행은 0.7%를 적용하고 있다.

김범근 기자 nova@

손보사 1분기 실손보험 6866억 손실

지급액 7% 늘어 2조7290억
내년 보험료 올해만큼 오를 듯

올해 실손의료보험 보험료를 인상했지만, 보험사들은 1분기에도 막대한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실손보험 계약을 보유한 13개 손해보험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개인 실손보험 보험금 지급액인 '발생손해액'은 작년 1분기보다 6.7% 늘어난 2조7290억 원으로 집계됐다.

가입자가 낸 보험료 중 사업운영비를 제외하고 보험금 지급 재원이 되는 '위험보험료'를 작년 동기보다 10.4%나 많은 2조573억 원을 걷었지만 보험금 지급에는 턱없이 모자랐다.

이에 따라 1분기 실손보험은 6866억 원 손실을 기록했다. 작년 1분기 손실 6891억 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위험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액 비율, 즉 위험손해율은 132.6%에 달했다. 지난 1월 '2세대' 상품인 표준화실손보험(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의 보험

료가 회사(손해보험사)별로 8.2~23.9%나 올랐지만, 위험손해율은 떨어지지 않고 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료 인상에 도 실손보험 손해율과 손실액은 작년과 큰 차이가 없다"며 "올해도 손해보험업계에서 만 2조 원을 훨씬 웃도는 적자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13개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손실액은 2조3695억 원이며, 위험손해율은 130.5%를 기록했다.

실손보험은 일부 가입자의 과잉 의료이용으로 인해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금액 중 상위 절반은 근골격계 질환(허리디스크, 요통, 어깨병변)과 안과질환(백내장 질환)이 차지한다.

손보사들은 추가적인 실손보험료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화재 등 각 보험사는 최근 1분기 실적발표 기업설명회(IR)에서 내년 실손보험료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서지연 기자 sjy@

신한카드 이사회에 'ESG 위원회' 신설

전사적 ESG 추진 동력 강화

신한카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책임 경영 강화를 위해 이사회에 'ESG 위원회'를 설치한다.

신한카드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관련 규정을 의결하고 총 5명의 ESG 위원회 위원을 선임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전담조직인 ESG 팀을 통해 친환경·상생·신뢰 경영 차원의 전사 ESG 전략과제를 실행했지만, 앞으로는 사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서 ESG 관련

주요 전략 결정과 정책 수립을 총괄·관리해 나설 예정이다.

ESG 위원회는 신한카드가 추진하고 있는 ESG 경영을 강화함과 동시에 다양한 ESG 전략 방향 및 관련 사업들을 이사회를 통해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신한카드는 이를 통해 전사적인 ESG 추진 동력의 강화와 ESG 활동의 체계화, 투명성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신한카드는 ESG 위원회 설치를 시작으로 경영진으로 구성된 ESG 협의회,

실무부서 부서장으로 구성된 ESG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ESG 경영 추진을 위해 이사회부터 실무부서까지 참여하는 유기적인 체계 구축에 나서는 것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ESG 위원회 신설을 통해 신한카드의 ESG 경영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ESG 성과 또한 고객 및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전달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신한금융그룹의 ESG 경영 실천을 통해 '친환경' '상생' '신뢰'의 세 가지 관점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사회적 기업의 책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삼성생명, 英 자산운용사 세빌스IM 지분 25% 취득

삼성생명은 27일 오전 이사회를 개최하고, 영국의 종합부동산 그룹 세빌스 인베스트 매니지먼트(세빌스 IM) 지분 25%를 6375만 파운드(약 1013억 원)에 취득하는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세빌스 IM은 총 32조 원 규모의 운용자산을 유럽 중심의 다양한 부동산 분야에 투자중인 운용사이다. 특히, 유럽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13개국에 운용 거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삼성생명은 작년부터 세빌스 IM에 대한 실사 작업과

협상을 진행해왔으며, 4월에는 협상팀이 런던 본사를 직접 방문해 최종적인 투자 조건 합의를 이끌어냈다. 삼성생명은 세빌스 Plc가 100% 갖고 있던 지분 25%를 인수해 세빌스 IM의 2대 주주가 됐다.

한편 삼성생명은 세빌스 IM에 지분인수 거래완료 시점 이후 4년간 10억 달러(약 1조1000억 원)의 자산을 위탁운용 약정하기로 했다. 또한 삼성생명은 위탁운용 약정의 진행 결과 등에 따라 10%의 지분을 2025년까지 추가로 취득할 수 있는 옵션도 보유하게 됐다.

서지연 기자 sjy@

무르익은 JY 사면론, 빨라지는 삼성 투자시계

삼성 투자계획

삼성전자

- 미국** 약 20조 원(170억 달러) 규모 파운드리 공장 증설
- 국내** - 2030년까지 171조원 투자
- 2022년 하반기 평택 3라인 완공 예정
- M&A** 올 3월 주총서 김기남 부회장 "분야 가리지 않고 M&A...미래 성장 발굴"

삼성SDI

- 미국** 합작회사 등을 통한 공장 건설 검토 중

삼성바이오로직스

- 국내** 2023년까지 25.6만리터 규모 4공장 신설

정계제 잇단 건의 8·15 특사 기대 미국 파운드리 공장 후보지 결정 전략적 M&A 미래성장동력 발굴 삼바 4공장 건설 등 하반기 속도

경제계를 중심으로 건의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론이 정치권의 가세로 더 힘을 받으면서 삼성의 향후 투자 시나리오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다음 달 생일을 맞는 이 부회장은 2017년 이후 4년 만에 또다시 옥중생일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1968년 6월 23일생인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1월 재수감됐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별도의 고려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4주년 특별연설

간담회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과 관련해 "충분히 많은 국민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여당도 이 부회장과 삼성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26일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모여, 미국 모더나와 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 계약을 맺은 삼성바이오투 "좋은 기업"이라고 치켜세웠다. 대권 도전을 선언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부회장 사면과 관련 "긍정적으로 검토할 때가 온 게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말하는 등 대권 주자들의 긍정적인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경제계와 종교계 등에서도 이 부회장 사면론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재계는 이 같은 긍정적인 기조가 계속 이어진다면 이 부회장의 사면이 이르면 8·15 광복절 특사로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할 경우 삼성의 투자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먼저, 약 20조 원(17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반도체 투자부터 매듭을 지어야 한다. 삼성전자는 미국 내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투자를 공식화한 가운데 최종 후보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미 삼성 파운드리 공장이 있는 텍사스주 오스틴이 유력한 후보지로 좁히지만, 뉴욕주와 애리조나주 등 다른 후보지와도 인센티브를 협의하며, 투자 결정을 저울질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30년까지 총 171조 원을 투자해 첨단 파운드리 공정 연구개발과 생산라인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삼성전자는 최근 정부의 'K반도체 전략'에 동참하며, 기존에 수립한 133조 원 투자계획에 무려 38조 원을 더 실었다. 내년 하반기에는 축구장 25개 크기의 평택 3라인을 완공할 예정이다. 현존하는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반도체 공장으로 EUV(극자외선) 기술이 적용된 14nm(나노미터·1nm=10억분의 1m) D램과 5nm 로직 제품을 양산한다.

코로나19로 주목받은 바이오 사업의 공격적인 투자도 예상된다. 모더나와 계약을 체결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1, 2, 3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25만6000리터 규모의 4공장을 신설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정부가 'K 바이오'를 강화하는 가운데, 삼성이 SK와 함께 바이오 투자를 기존보다 강화할 수 있다.

전략적인 인수·합병(M&A)도 삼성의 과제다. 삼성전자는 올해 1월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의미 있는 규모의 M&A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3월 주주총회에서 김기남 부회장은 "분야를 가리지 않고 M&A 대상을 신중히 탐색하고 있다"라며 전략적 M&A로 미래성장 발굴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 M&A를 언급한 것은 2017년 전장 회사인 하만 인수 후 처음이다. 구체적인 M&A 인수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만큼 이 부회장 석방 이후 M&A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권태성 기자 tskwon@

LG전자도 눈부심 없는 상향등 개발

전장 자회사 ZKW 시제품 내내 센서로 반대편 車 인식 자율제어 전면카메라 없는 구형차도 가능

LG전자 자회사인 자동차 전장 업체 ZKW가 눈부심 없는 상향등 개발에 성공했다. 미래 성장동력인 자동차 전장 사업에서 LG전자가 과감한 투자와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승부를 걸고 있다는 평가다.

27일 ZKW에 따르면 이스라엘 스타트업 '뉴스사이트이미징(Newsight Imaging)'과

협업을 통해 최근 눈부심 없는 상향등의 프로토타입(시제품)을 개발했다. 이 상향등은 관련 센서 및 제어 장치와 함께 헤드라이트에 직접 통합된다. ZKW는 '센스Z(senseZ)'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한 이 제품을 조만간 생산할 계획이다.

새롭게 개발된 상향등 시스템을 사용하면 전면 카메라가 없거나 ADB(어댑티브 드라이빙 빔)용으로 설계되지 않은 구형 차량 모델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시스템은 고해상도의 기존 ADB 기술을 업그레이드하는 데에도 적

합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새로운 시스템은 헤드라이트에 내장된 눈부심 없는 상향등을 위한 통합 모듈로 구성된다. 모듈에 포함된 센서 등을 통해 상향등을 지능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야간에 다른 도로 사용자를 방해하지 않아, 도로 안전 향상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ZKW 측은 "뉴스사이트 이미징과 추가 개발 및 공동 상용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ZKW의 전장 사업은 LG전자 미래 성장동력의 한 축이다. 오는 7월 마그나 합



LG전자의 전장 전문 자회사 ZKW가 개발한 헤드라이트. 사진제공 LG전자

작법인 출범을 기점으로 인포테인먼트 중심의 LG전자 VS사업본부, 램프 사업을 하는 ZKW, 파워트레인 담당 '엘지 마그나 파워트레인' 등 3대 축으로 본격적인 성장 가도에 오르게 된다. ZKW는 고속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올리버 슈버츠 ZKW 최고경영자는 지난 2월 "회사 역사상 최대 주주량을 확보했다"며 "2022년에

는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ZKW가 현재 10조 원 이상의 수주를 확보한 것으로 추산한다. LG전자는 지난해 콘퍼런스콜에서 2020년 기준 전장 사업 부문의 전체 수주 잔액이 60조 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체 수주 잔액 전체 중 ZKW가 차지하는 규모가 약 20%로 알려졌다. 송영록 기자 syr@

수소 인프라 구축 가속도

한화솔루션, 글로벌에 차량용 수소 공급

대기오염 없는 soda공장 부산물 지역충전소에 2년간 48톤 규모

한화솔루션이 현대글로벌이 구축하고 있는 수소 충전소에 올 7월부터 2년 동안 자동차 연료용 수소를 공급한다.

한화솔루션은 27일 현대글로벌에 자동차 연료용 수소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 7월부터 2년 동안 총 48톤의 수소가 공급될 예정이다.

한화솔루션이 공급하는 수소는 여수

공장 가성소다 생산 공정에서 만들어진 다. 가성소다의 원료인 소금(NaCl)을 물(H₂O)에 녹여 분해하면 수소(H₂)가 발생한다. 소금물에서 생산되는 수소는 석유화학 공정에서 나오는 부생수소와 다르게 대기오염 물질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과정으로 생산된 수소는 정제 과정을 거쳐 순도 99.999%의 자동차 연료용 수소로 전환돼 현대글로벌 지역 수소 충전소에 공급된다.

한화솔루션은 최근 수소 생산·저장·운송 등 모든 과정에 걸쳐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40여 년간 소금물 전기

분해 공정을 운영해 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에 기반을 둔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수전해 기술도 개발 중이다. 강원도, 한국가스 기술공사와는 평창 대관령면에 그린수소를 연간 최대 290톤 생산할 수 있는 수전해 시설과 충전소를 내년 하반기 안으로 건설하고 15년 동안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자동차 연료용 수소 시장은 2030년 연간 37만 톤, 총 3조2000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대영 기자 kdy@



삼성전자는 탈취·건조·살균을 통해 신발을 최적의 상태로 관리해 주는 '비스포크 슈드레서'를 27일 출시했다. 비스포크 슈드레서는 '에어워시'로 냄새 입자를 털어내고, 'UV 냄새분해 필터'가 털어낸 입자를 분해해 57가지 냄새 유발물질을 95% 제거해 준다. 출고가는 99만9000~109만9000원이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포스코, 해상풍력단지 세워 그린수소 만든다

풍력발전 1위 오스테드 맞손

포스코는 26일 덴마크 오스테드와 국내 해상풍력 및 그린수소 사업 포괄적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세계 해상풍력발전 1위 업체인 오스테드는 2026년 이후 상업운전 개시 예정인 사업비 8조 원 규모의 국내 최대 1.6GW(기가와트)급 인천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포스코는 그간 오스테드의 영국 해상 풍력발전 프로젝트 혼시(Hornsea) 1,

2에 10만 톤 이상의 강재를 공급하는 등 다양한 글로벌 풍력발전 프로젝트에 강재 공급 협력 관계를 맺었다.

이번 MOU를 통해 오스테드는 해상 풍력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그린수소 생산 시설을 한국에 구축하게 된다. 포스코는 해상풍력발전 단지 구축에 필요한 철강재 공급과 함께 풍력발전소를 활용한 그린수소생산에 참여한다. 또 포스코건설은 해상풍력 구조물 건설, 포스코에너지는 그린수소 저장 및 수소 발전 등을 담당한다.

향후 포스코는 오스테드와 공동으로

인천 해상풍력발전 및 그린수소 사업 전반에 관한 연구와 사업타당성 조사를 추진한다.

여기에 더 나아가 국내 수소에너지 전환 및 탈탄소 실현에도 이바지할 방침이다.

전종선 포스코 전략기획본부장은 "포스코는 수소사업을 차세대 미래성장 산업으로 선정하고, 그린수소 사업기회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오스테드와 사업 협력으로 그린수소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유럽 판매 앞둔 제네시스, 현지 최고 안전등급

G80·GV80 '유로 NCAP' 별 5개

현대자동차의 고급차 브랜드 제네시스가 유럽 현지에서 안전성을 입증받았다. 제네시스는 오는 6월부터 유럽 주요국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27일 '유로 NCAP(엔캡)'과 현대차 등에 따르면 제네시스 G80과 GV80이 유럽 신차 안전도 평가(NCAP)에서 최고 등급인 '별 5개'를 획득했다.

G80과 GV80은 충돌 테스트에서 승객석의 충격 안전성과 보호 기능을 높이 평가받았다. 어린이 승객 안전성 부문에서도 시트와 헤드레스트 테스트에서 후방 추돌 사고 발생 시 조수석 보호 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네시스는 6월부터 유럽에서 제네시스 대형 고급세단 G80과 대형 SUV인 GV80 사전 주문을 받는다. 이후 스포츠 세단 G70과 중형 SUV GV70도 출시할 계획이다. 김준형 기자 junior@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하나뿐인 지구를 위해 하나로 힘을 모읍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금융의 첫걸음 BIG STEP FOR TOMORROW

하나금융그룹은 ESG 실천을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모두와 하나가 되겠습니다

- 2030년 60조 ESG 금융지원 및 조달
- 2050년 사업장 탄소배출량 ZERO 달성
- 2050년 석탄 프로젝트 파이낸스 ZERO



권칠승 “손실보상 소급적용 논의보다 급한 불부터 꺼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취임 100일 간담회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법제화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하고 급한 불을 끄는 게 먼저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 100일 소회를 밝히며 손실보상에 대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있는 마루180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권 장관은 “(손실보상제에 대한) 법리 논쟁에 빠져서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나간 이후 (추가 지원이) 논의조차 안 되는 상황”이라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법제화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하고 급한 불을 먼저 끄는 지원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이름은 다르지만, 중기부는 버팀목 자금 등 꾸준히 소급해서 피해 지원을 해왔다.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의 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손실보상은 광범위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데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며 “어려움을 신

법리 논쟁 빠져 정책지원 중단
보상 방식 방법론의 차이일 뿐

스톡옵션·M&A 펀드 확대 추진
신규 사업 진출·구조개선 지원

속하게 구제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과연 어떤 방식이 소상공인에게 유리한가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소급 관련 부분이 앞서 나가면서 정부의 다양한 지원 방안이 중단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런 논쟁에 빠지면서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지급된 이후 피해 지원 방식에 대한 논의조차 안 되는 상황이 돼 버렸다”라며 “합리적인 방식으로 (손실보상 관련) 법제를 만드는 건 별도로 하고, 우리가 하는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한편 취임 100일 간의 주요 성과에 대해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7일 서울 강남구 아산나눔재단 창업지원센터 마루180에서 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칠승 장관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최초 공주 개소 △브랜드 K 활성화 △중소기업간 경쟁제도 개선 △자상한기업 2.0 △직권조사 시정명령제 시행 △수출지원 고도화 방안을 마련 추진 등을 언급했다.

권 장관은 “중소기업 수출 호조, 사상 최

대 벤처투자 등 중소기업계의 경기회복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은 회복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현장이 원하는 정책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 미래를 대비하는 혁신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겠다”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

션) 제도 활성화 △M&A 펀드 확대 △실리펀벨리식 복합금융 △복수의결권 도입 △소상공인 구독경제 생태계 구축 △원격 모니터링 등 신산업 확산 △K-바이오 랩 허브 추진 △기술이전 DB(테크브리징) 활성화 △중소기업의 ESG 경영 등의 정책 방향 계획을 밝혔다.

권 장관은 “중소벤처기업이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도록, 사업조정과 전환, 원활한 구조개선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겠다”라며 “성장이 정체된 기업은 신산업 진출을 유도하고, 경영이 악화한 기업은 선제 구조개선을 돕는 등 ‘중소기업 신산업 진출 및 제도약 촉진방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예산 구조개편을 통한 정책 체질개선, 지방청 기능 강화, 혁신적 조직 문화 형성 등 환경 변화에 유연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내부 혁신도 강하게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 출범 4년 차인 중기부가 성장통을 벗어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로 거듭나도록 내적외적으로 담금질하겠다”고 덧붙였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핀테크로 자산관리 서비스 가상화폐 시장은 대체자산”

인터뷰

이지혜 에임 대표

가상화폐(가상자산·암호화폐), 주식, 채테크 등 ‘투자하지 않으면 바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한민국은 투자 열풍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다양한 투자 방법이 생긴 가운데 투자자문사 ‘에임’의 성과가 눈에 띈다.

2016년 4월 15일 법인을 설립한 에임은 핀테크 자산관리 서비스 전문기업이다. 누적 회원 수 65만6000명을 보유하고 있다. 관리하고 있는 누적 자산의 총액은 4500억 원을 넘어섰으며 최근 4년간 누적 수익률은 42.52%에 달한다.

서울 역삼동에서 이투데이와 만난 이지혜(사진) 에임 대표는 “전문가의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시점에 잘못된 자문을 받으면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가 있다”며 “좋은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질은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현재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현재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 ‘대체자산’이라고 설명했다.

자금과 다르게 움직이는 금, 입아, 농산물 등의 자산들이 있는데 가상화폐도 이와 마찬가지로 의미다. 다양한 자산 중 새로운 자산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시장에 새로운 스트레스가 왔을 때 가상화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 대표는 “가상화폐는 최고점을 찍은 순간부터 급락해서 새로운 최고점을 찍는 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정도로 시크릿한 자산”이라며 “가상화폐로도 새로운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속도감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올해 시장을 전형적인 열리사 이클(경기침체에서 벗어나 회복 초기 단계)로 분석했다. 특히 급격하게 자



4년간 누적 수익률 42.5%
올 시장 경기회복 초기단계
전문성 갖추고 신뢰 쌓을 것

산가치가 떨어졌다가 회복하는 속도는 2008년 금융위기때보다 2배 가량 빨라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특정 영역에서 자산가치가 오르면서 변동성이 높아지는 지점을 눈여겨보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성장의 기운이 예상보다 둔화되는 일반적인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판단한다.

이 대표는 “생애 첫 투자, 긴 호흡으로 투자하면 대부분의 경우 자산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며 “성과에 대한 특성들을 알고 길게 생각한다면 누구나 자산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에임은 올해 다양한 솔루션을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우선 길러 서비스를 1년에 3개 정도는 만들어야 한다는 방침을 앞세워 새로운 인프라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안에는 꼭 1개의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한다는 목표다. 그러면서 아시아와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해외 진출도 꿈꾸고 있다.

이 에임 대표는 “해외에 어떠한 금융서비스가 있어도 에임을 통해 다양한 국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아시아의 소시민들에게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기반의 금융회사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성준 기자 tiatio@

SKB, 低전력 셋톱박스 개발 ‘ESG 경영’ 박차

타사 모델보다 대기전력 65% 절감... 저탄소 제품 인증 추진

SK브로드밴드가 저(低)전력 셋톱박스(사진)를 개발하는 등 ESG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셋톱박스는 대기 전력(전원을 끈 상태에서 소비되는 전력)이 커 ‘전기 도둑’으로 불린다. SK브로드밴드는 대기 전력이 타사 모델 대비 50~65% 낮은 저전력 셋톱박스를 최근 개발해 서비스하고 있다.

대기 전력을 낮추기 위해 여러 부품 및 소프트웨어 최적화에 공을 들였다는 설명이다. SK브로드밴드는 “그간 국내 IPTV 셋톱박스에 잘 안 쓰였던 미국 Amlogic의 시스템 반도체를 과감히 도입한 것이 결실을 이뤘다”고 했다.

새로 개발하는 셋톱박스에 대해선 ‘저탄소 제품 인증’도 추진한다. 제품의 원료부터 생산, 수송, 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 대한 탄소 배출량을 공개하는 제도다. 저탄소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인증한다. SK브로드밴드는 현재 셋톱박스 1개 모델(BHX-UH200)d에 대해 저탄소 제품 인증을 받았다. 올해 출시를 앞둔 셋톱박스를 포함해 총 7개 모델의 인증을 준비 중이다.

SK브로드밴드는 전력 사용이 큰 구형 전화교환기(PSTN)를 새 장비로 교체해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다. PSTN은 시내전화 서비스를 위해 1990년대 후반 도입한 장비다.

인터넷 트래픽 증가로 사용이 늘어난 백본망(대규모 연결망) 장비도 소비 전력을 크게 개선했다. 새 장비는 구형보다 처리 용량은 2.5배 늘리는 대신, 소비 전력은 최대 63% 줄였다. 이런 방식으로 최근 3년간 약 1230톤(전력 약 2700Mwh)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를 냈다.

이 밖에도 SK브로드밴드는 지난 2월 한



‘녹색프리미엄’ 계약을 체결했다. ‘녹색프리미엄’은 전력 소비자(기업)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 사용을 인정받기 위해 추가 요금(프리미엄)을 내고 ‘재생 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는 제도다.

약 150가구(4인 가구 기준)의 1년 사용량 수준으로 SK브로드밴드는 이 전력 전체를 여주위성센터 운영에 투입해 ‘100% 친환경 에너지 사업장’으로 탈바꿈 시킬 예정이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한국, 달 탐사 ‘아르테미스’ 승선

50여 년 만에 유인 달착륙 진행

한미 정상회담의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우리나라가 미국 주도의 달 탐사 프로그램 ‘아르테미스 약정’에 가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항공우주청(NASA)과 대한민국이 아르테미스 약정(Artemis Accords) 추가 참여를 위한 서명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미국은 1970년대 아폴로 프로젝트 이후 50여 년 만에 달에 우주인을 보내기 위한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원칙으로서 ‘아르테미스 약정’을 수립했다.

약정은 평화적 목적의 달, 화성, 해성, 소행성 탐사 및 이용에 관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참여국들이 지켜야 할 원칙을 담고 있다. 작년 10월 NASA와 7개국 기관장들이 약정에 서명했으며 11월 우크라이나가 추가 참여해 현재 미국, 일본, 영

국, 이탈리아, 호주, 캐나다, 룩셈부르크, UAE, 우크라이나 등 9개국 서명한 상태다.

과기정통부와 외교부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의 아르테미스 약정 추가 참여에 대한 양국의 합의를 끌어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이 대한민국을 대표해 서명했으며 양국 간 합의에 따라 이날 동시에 공개됐다.

약정 추가 서명을 계기로 향후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및 후속 우주탐사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분야에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내년 8월에 발사 예정인 한국 달궤도선(KPLO)도 NASA와 협력을 통해 개발 중이며, NASA의 새도캠(ShadowCam)도 탑재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기여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달 표면 관측을 위한 과학탐사체를 개발해 미국의 민간 달착륙선에 실어 보내는 CLPS 프로그램에도 참여 중이다.

조남호 기자 spdran@

‘착한 임대인’ 인센티브 중기부, 12월까지 연장

중소벤처기업부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에게 부여되고 있는 인센티브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착한 임대인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정한 임대인으로, 이들에 대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한다.

기존 임대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기간 동안 임차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올해 2분기 기준 적용 금리는 2.33%로 7000만 원을 한도로 한다. 착한 임대인 소유 점포에 대한 무상 전기안전점검 혜택도 올해 12월까지 연장된다. 임대인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점검을 신청하면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방문해 안전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TV·숙박권 팝니다” 美시장 위해 몸집 불리는 마켓컬리

가전리빙 페스타 열고 가전 할인
신사업 론칭하며 쿠팡 벤치마킹
새벽배송도 확대 ‘성장성’ 강화

마켓컬리가 취급 품목을 확대하고, 신선 식품의 빠른 배송 지역을 넓히며 몸집 불리기에 나섰다. 미국 증시 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쿠팡이츠와 쿠팡플레이 등 신사업에 나서며 기업가치를 끌어올렸던 쿠팡을 벤치마킹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수년간 적자를 기록한 제주맥주가 테슬라 특례로 코스닥 상장 성공하면서 컬리 역시 사업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TV 파는 컬리... 쿠팡 벤치마킹=마켓컬리는 28일까지 TV와 냉장고, 에어컨부터 접시, 도마, 프라이팬까지 프리미엄 가전제품과 주방용품 등을 최대 40% 할인 판매하는 가전리빙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을 통해 마켓컬리는 LG전

자의 대형가전을 처음 선보인다. TV와 건조기, 스타일러 등 총 60여 종의 제품을 판매하며, LG전자 입점 기념 5% 할인 쿠폰을 모든 구매 고객에게 증정한다.

LG 울트라 HDTV 75인치 판매가 (199만 원)에서 5% 할인 쿠폰을 사용하면 189만 원에 구매 가능하며 최소 적립금 7%만 적용해도 약 176만 원에 구매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는 네이버 최저가보다도 약 8% 싼 가격이라는게 회사측 설명이다.

신선식품 위주로 판매했던 마켓컬리는 지난달 말 처음으로 호텔 숙박권을 판매하며 취급 품목 확대에 나서고 있다. 웨스틴조선 서울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페어몬트앤베서더 서울 숙박권과 식음료(F&B) 입장 이용권 등을 묶은 상품을 한정판매한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는 마켓컬리 예약자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숙박 상품인 ‘비발디파크 컬리 에디션’을 팔고 있다.

주방가전과 테이블웨어도 가짓수를 늘리고 있다. 2016년 토스트기를 처음 판매



한 후 최근에는 ‘덴비’ 네스팅볼 세트와 ‘르쿠르제’ 무쇠 주물냄비, ‘오덴세’ 테이블웨어, ‘브레벨’ 스마트오븐과 ‘발뮤다’ 토스터 등으로 품목을 늘렸다. 뷰티 카테고리도 최근 ‘AHC’와 ‘아토팜’ 등을 취급하며 올해 1~4월 뷰티 판매량은 전년보다 350% 증가했다.

◇美증시·코스닥 테슬라 특례 ‘저울질’=마켓컬리의 사업 다각화는 상장을 추진하면서 몸값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컬리는 국내와 미국 증시 입성을 두고 저울질했으나 수년 간 누적된 적자로 미국

증시 상장에 무게를 두게 됐다고 알려졌다. 실제 이 회사는 2017년 삼성증권과 체결한 상장주관 계약을 해지하고 올 들어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 JP모건 등 외국계 상장주관사단을 꾸렸다.

최근 서비스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며 해외 증시 입성을 염두에 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마켓컬리는 3월 김포 물류센터를 오픈해 처리 물량을 기존의 2배로 확대했고, 이달 초부터는 CJ대한통운과 함께 대전시 일부지역과 세종, 천안, 아산, 청주 등 충청권에 새벽배송을 제공한다. 하반기에는 영남과 호남으로 서비스 지역을 넓힐 계획이다.

재무 건전성 등 내실을 주로 보는 국내와 달리 미국 증시는 성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한다. 출범 이후 계속된 영업손실로 누적 적자만 4조 원이 넘는 쿠팡도 상장 직전 ‘쿠팡이츠’와 ‘쿠팡플레이’ 등을 내놓으며 증시 입성에 성공했다. 당초 30조 원으로 평가받던 기업 가치도 쿠팡 상장 첫날 100조 원으로 치솟았다. 컬리도 누적 적자

가 2700억 원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까다로웠던 ‘테슬라 요건’ 상장으로 제주맥주가 코스닥 입성에 성공하면서 ‘성장성’에 더욱 중점을 두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 증시로 방향을 돌리더라도 매출이 꾸준하다면 입성 기회가 열려 있다는 얘기다.

테슬라 상장은 적자 기업이라도 성장성이 있다면 코스닥 진입을 허용하는 제도다. 제주맥주는 2015년 설립 이후 계속 적자를 냈지만 연평균 1.5배의 매출 성장을 기록 중이다. 마켓컬리 역시 매출 증가율이 2배에 달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쿠팡이 신사업을 론칭하면서 가치를 올렸던 만큼 마켓컬리의 서비스 지역이나 취급 품목 확대는 미국 증시를 우선적으로 노린다고 봐야 한다”면서도 “다만, 쿠팡이츠나 쿠팡플레이 같은 완전한 신사업이 아닌 데다 자체 배송망을 활용하지 않은 지역 확대가 기업가치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봤다.

남주현 기자 jooh@

‘컬래버’로 돌아왔다 장수 먹거리의 회춘

장수 브랜드 먹거리들이 회춘에 공들이고 있다.

곰표, 말표 등의 콜라보 제품이 쏟아져 나온 MZ세대 마케팅으로 재미를 본 장수 브랜드들이 떠나 할 것 없이 젊은 브랜드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신제품 개발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오랜 세월 쌓은 인지도를 이어가는 방식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환기시키고, 미래 소비주역으로 꼽히는 MZ세대에 적극적으로 브랜드를 알리겠다는 구상이다.

대상은 1956년생 ‘미원’의 로고를 활용한 ‘미원라면’을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미원의 감칠맛을 더한 컵라면 제품으로 미원 고유 서체와 신신로 디자인을 패키징에 적용해 뉴트로 감성을 살렸다. MZ세대 공략 마케팅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출시한 ‘미원맛소금팝콘’이 한 달 만에 30만 개 이상 팔려나갈 정도로 인기를 끌자 뒤를 잇는 미원 브랜드 두 번째 제품이다.

특히 대상이 국내에서 라면 제품을 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에는 글로벌 일부 유통채널에 한해 ‘종가집 김치라면’을 내놓은 것 이외에는 라면을 출시한 적이 없었다. 대상 측은 젊은 세대를 겨냥해 한시적으로 출시한 라면이라는 설명이다.

대상은 전통 장수브랜드 미원을 중심으로 ‘젊어지는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 2014년 대대적 리뉴얼을 통해 ‘밥집 미원’ 팝업 스토어를 여는가 하면 지



뚜레쥬르의 ‘사랑해요 밀키스 케이크’.

대상, 미원 감칠맛 더한 컵라면
밀키스, 뚜레쥬르 케이크 변신
오랜 인지도 바탕으로 MZ세대 공략

난해 미원을 활용한 레시피북 ‘미원식당’을 출간하고, 부캐 마케팅을 활용한 ‘홍미원’을 선보이기도 했다. MZ세대의 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와 손잡고 미원 굿즈 4종을 단독으로 입점시켜 이들 세대와 소통을 꾀해왔다.

대상 관계자는 “65년 동안 한국인의 입맛을 책임져 온 국민조미료 미원이 그동안의 고전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MZ세대의 공감을 얻는 다양한 변신 시도하고 있다”며 “미원라면이 기성세대에게는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MZ세대에게는 새로움과 재미를 주는 제품

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974년에 태어난 오뚜기 정통 조미료 순후추도 컵라면으로 변신했다. 오뚜기 순후추는 이마트24와 손을 잡고 순후추 디자인을 컵라면 용기에 그대로 적용한 ‘오뚜기 순후추라면 매운맛’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출시 직후 일주일 동안 인기 상품목록 3위에 오르며 호응을 얻었다.

올해로 33살인 롯데칠성음료의 장수브랜드 밀키스는 뚜레쥬르와 손잡았다. 대표 제품은 ‘사랑해요 밀키스 케이크’로 밀키스 맛의 주레와 부드러운 밀키스 크림에 팡팡 캔디를 넣었다. ‘사랑해요 밀키스 빵’은 결이 살아 있는 촉촉한 페이스트리에 달콤한 밀키스 글레이즈를 올려 결 따라 뜯어 먹기 좋다. ‘밀키스 풍당 크랩빵’은 달콤한 밀키스 글레이즈와 바닐라 생크림을 담았다.

여름을 앞두고 이색 빙과로 선보인 ‘밀키스 아이스박스’는 부드러운 시트 사이사이 밀키스 맛을 그대로 담은 크림을 듬뿍 발라, 얼려 먹으면 아이스크림 샌드처럼 즐길 수 있다. ‘사르르 밀키스 빙수’는 여름 더위를 날려 줄 탄산처럼 시원한 색상의 빙수로, 밀크소다 크림으로 더 부드럽게 즐길 수 있다. 시그니처 음료 우유셰이크에 밀키스의 풍미를 더한 ‘사랑해요 밀키스 셰이크’ 등도 출시한다.

김혜지 기자 heyji@



달달한 아이스 와인을 반값에 신세계백화점이 더워지는 날씨에 맞춰 차갑게 마시는 ‘아이스 와인’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소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아이스 와인은 일반 와인 대비 당도가 높고 파인애플, 복숭아, 오렌지 등 열대 과일의 향이 특징이다. 신세계백화점 본점 지하 1층 와인숍에서 6월 9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의 대표 품목으로는 필리터리 비탈 아이스 와인 리저브(7만7000원), 필리터리 까베르네 소비뇽 아이스 와인(9만1500원) 등이 있다. 신세계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입어보고 사세요” 무신사 홍대 상륙

MZ 특화 ‘스탠다드 홍대’ 오픈

스파오, 탑텐, H&M 등 패션 SPA 브랜드가 준비한 홍대 상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패션플랫폼 공룡으로 성장한 무신사가 ‘무신사 스탠다드 홍대’를 열고 처음으로 오프라인 진출에 나서면서다. MZ세대에게 특화된 무신사가 놀거리, 볼거리, 살거리를 두루 갖춘 홍대 매장을 시작으로 차세대 SPA 리딩 브랜드 자리를 꿰찰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무신사는 자체상표(PB)인 ‘무신사 스탠다드’ 제품을 중심으로 한 첫 번째 플래그십 스토어 ‘무신사 스탠다드 홍대’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250평 규모 매장에는 무신사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인기 제품이 들어가 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보여주는 의미에서 ‘타임리스’를 콘셉트 삼아 매장을 꾸렸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전체 층을 관통하는 거대한 미디어 타워는 BTS 뮤직비디오 아트디렉터로 이름을 알린 룸펜스의 미디어 아트 작품이다.

백화점의 얼굴은 1층이지만, 무신사의 얼굴은 지하 1층에 있다. 무신사의 ‘본산’이라 할 수 있는 남성 제품 전용공간으로 총 100평 규모다. 일명 ‘무신사룩’으로

불리는 슬랙스, 티셔츠부터 넥타이, 양말까지 즐비하다. 최근 29CM, 스타일웨어 등을 인수하면서 여성복 강화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여성 제품은 2층에 있다. 모든 제품은 태그마다 QR코드가 박혀 있어 휴대전화로 스캔만 하면 알아서 집까지 배송해준다.

무신사 홍대 매장의 가장 큰 특징은 철저히 MZ세대에 맞춰 설계했다는 점이다. 우선 저렴한 가격이다. 티셔츠 1만 원대, 슬랙스 2만~3만 원대 등 정장 한 벌을 10만 원대로 마련할 수 있다. 할인 이벤트를 활용해 할인가를 적용하면 더욱 ‘가성비’ 넘치는 쇼핑도 가능하다. 웬만한 SPA 브랜드들보다도 더 싼 셈이다.

‘OOTD’(outfit of the day) 등 패션 매장을 방문해 새 옷을 입고 거울 셀카를 즐겨하는 MZ세대를 위해 무신사는 ‘피팅룸’도 놀이터처럼 만들었다. 각 피팅룸은 색온도 조절은 물론 밝기 조절을 할 수 있는 스위치가 설치됐다.

브랜드 경험 및 공간 경험을 대폭 강화한 무신사가 향후 탑텐, 스파오 등 SPA 브랜드와 별일 경쟁도 벌써부터 관심거리다. 지난해 무신사 매출은 3391억 원으로 2018년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폭풍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김혜지 기자 heyji@

BTS 앞세운 롯데제과, 자일리톨 새 모델로

롯데제과가 국민겸 자일리톨의 광고 모델로 글로벌 슈퍼스타 방탄소년단을 발탁했다고 27일 밝혔다.

롯데 자일리톨은 앞으로 1년간 방탄소년단을 앞세워 ‘스마일 투 스마일(SMILE TO SMILE) 프로젝트’를 전개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자신을 미소 짓게 하는 작은 노력이 곧 웃음으로 가득한 전 세계를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이다. 미국, 캐나다, 일본, 동남아 등 해외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전개되는 글로벌 프로젝트로 광고 영상에서는 신곡

‘버터(Butter)’가 BGM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롯데제과는 그간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며 그동안 움츠렸던 겸 시장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당대 최고의 광고 모델을 섭외했다. 롯데제과는 방탄소년단의 범세계적인 영향력과 파급력을 통해 자일리톨의 인지도를 넓히고 이미지 제고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전 세계에 BTS 열풍을 일으키며 글로벌 스타로 우뚝 섰다. 제 63회 그래미 어워드 ‘베스트 팝듀오·



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에 노미네이트된 데 이어 단독 공연을 펼쳤고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에서 선정하는 ‘2020 올해의 엔터테이너’에 선정되기도 했다. 김혜지 기자 heyji@

인플레이 우려에 빛나는 金... “하반기 구리·원유 유망”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대표 안전 자산으로 꼽히는 금값이 연일 상승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엔 금값 상승세가 제한적일 전망이다며, 대신 구리, 원유 등 다른 원자재가 유망할 것으로 내다봤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기준 금 현물(99.99K) 가격은 전일 대비 0.18% 하락한 6만8420원을 찍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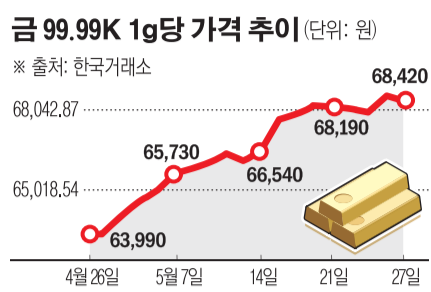
한 달 전 6만3000원 선에서 거래되던 것과 비교하면, 1개월 만에 8% 넘게 오른 셈이다.

최근 가파른 금값 상승세는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美 연준 ‘조기 테이퍼링’ 전망 위험 자산 회피 심리 이어져 전문가 “달리도 강세 보일 듯”

통상 금은값은 명목금리가 오를 때 하락하는 반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면 인플레이션 헤지(위험 회피) 수단으로 상승하곤 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시기를 예상보다 앞당겨 진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유동성 회수 우려가 커지며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자극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안전자산인 금값 상승으로 이어졌다.

유명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현재 물가 상승은 글로벌 공급망 차질,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이슈에 영향을 받고 있다”며 “예상보다 빠르게 물가가 상승하고

있어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비트코인 변동성이 커지자 금에 대한 선호도가 다시 높아진 것으로도 해석된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디지털 금’으로 불리며 금을 대체할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 주목받았다.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자 금의 대안 자산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가격 급락과 금값 상승의 유의미한 인과관계는 없다고 분석한다. 전규연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투자 목적상 ‘인플레이션 헤지’라는 교집합이 존재하지만, 안전자산 수요, 중앙은행

의 준비자산 역할은 가상화폐의 짧은 역사와 변동성을 고려하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반기까지 금값 상승세가 이어지진 않을 전망이다. 전세계적인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 국제 금리 상승, 미국 달러 강세 등을 고려하면 지속적으로 상승하긴 어려울 것이라 분석에서도.

전 연구원은 “금값은 하반기 미국 연준의 테이퍼링 가이던스 제시 시점을 전후로 미국 국제금리가 상승하며 다소 부진할 전망이다”며 “경기 회복을 기반으로 미국 달러도 하반기 강세 기조를 보일 개연성이 높으며, 이는 금 가격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인아 기자 ljh@

자사주 매입 수익률 47.5% ‘구현모 매직’

IP·OTT 등 ‘탈통신’ 본격화로 영업익 끌어올려

KT가 52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면서 구현모(사진) KT 대표의 투자 수익률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표 취임 이후 사들였던 추가 매입 주식의 수익률은 50%에 육박한다.

경쟁 통신사들의 수장들도 취임과 함께 추가 투자해 수익을 내고 있지만, 구 대표의 성과가 돋보인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구현모 대표는 지난해 12월 16·18일 이틀에 걸쳐 4000주의 KT 주식을 장내 매수했다. 총 9025만2000원을 투자했는데, 취득 평균단가는 2만2563원이었다.

보유 주식 수는 1만9563주에서 2만3563주로 늘어났다.

새로 사들인 4000주만 놓고 보면 수익률이 47.5%(26일 증가 기준)가 된다.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50%에 육박하는 수익률을 달성한 셈이다.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LG유플러스를 이끄는 황현식 사장이 수익률은 낮지 않다. 4월 14일 총 3억1500만 원어치(2만5000주)를 추가로 매수했는데, 취득단가는 1만2600원이다. 두 달 만에 약 18%의 수익률을 달성했다.

4년 넘게 SK텔레콤을 지휘한 박정호 사

장(SK하이닉스 부회장 겸임)은 2017년 3월 취임과 함께 1000주를 추가로 매수했다. 총 2억5800만 원을 투자해 평균 매수 단가는 25만8000원이다. 32만8000원의 주가로 계산하면 수익률은 23.2%로 나타났다. 적지 않은 성과지만, 수년에 걸친 투자란 걸 고려하면 다소 아쉬다.

구현모 대표의 수익률은 KT가 실적이나 안정성 측면에서 상당히 저평가 돼 있었고, 향후 통신업 이외의 사업에서의 성장을 자신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통신주는 은행주와 함께 대표적인 규제 사업으로 배당이 매력적인 가치주로 통한다. 주가가 무거워 높은 수익률을 쫓는 투자자에게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는 인식도 있다.

하지만 구 대표는 취임하자마자 저평가된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활약했다. 이달부터 그 성과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11일에 2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3만 원을 돌파했다. 이후 주가는 탄력을 받으며, 연일 52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구 대표는 KT가 통신업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도 수익성을 확보하는 전략을 꾀하는 중이다. 현대차증권은 내년 미디

〈KT 대표〉 구현모 매직



어, 금융, 인터넷데이터센터(IDC)·클라우드 등 신성장 사업이 영업수익을 이끌 것으로 전망했다.

미디어는 수직계열화를 마친 제작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부터 재무적투자자(FI) 투자유치가, 금융은 경쟁사 상장에 따른 케이뱅크 자본가치 부각이 주가를 추가 견인할 것이라 분석했다.

IDC·클라우드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가 결합된 토탈 솔루션 제공으로 2023년 1조 원 매출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KT시즌, 스튜디오지니의 투자유치가 가치 재평가의 트리거가 될 것으로 봤다. KT는 스토리리즈(IP), 스튜디오지니(제작), KT시즌(OTT)으로 이어지는 미디어 밸류체인 수직계열화를 완성했다.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KT는 내년 탈통신 영업수익 비중이 20%에 이르러 의미 있는 사업재편이 예상된다”며 “탈통신 본격화에 따른 재평가를 반영해 목표주가순자산비율(PBR)을 0.72배로 올리며 목표주가를 3만6000원에서 4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평가했다.

김우람 기자 hura@

구분	기획감시 대상기업	심리요리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시세조종 등	
			21종목	3종목*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2021년 실시 (20FY 결산기업 대상)	50종목	24종목	6종목	18종목		

한국거래소, 24곳 불공정거래 적발

‘12월 결산 한계기업’ 50개 감시

한국거래소가 24개 상장사에 대해 미공개정보이용과 시세조종 등의 혐의를 발견하고 추가적인 조사를 위해 심리요리를 진행했다. 이들 기업은 재무가 악화하거나 감사의견을 거절당해 거래가 정지된 일명 ‘한계기업’ 들이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7일 상장폐지 우려·관리종목지정 기업 및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 등 ‘12월 결산 한계기업’ 50사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혐의 여부에 대한 기획감시를 한 결과, 이 중 24사에 대해 유의미한 혐의사항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감시위는 이들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위해 심리를 의뢰했다. 24개 회사 중 21개사는 미공개 정보이용 혐의가 발견됐고, 3건은 부정거래·시세조종 의심 사안이었다. 시장별로 혐의사항이 발견된 종목의 시장별 분류는 유가증권시장 종목 6건, 코스닥시장 종목이 18건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감사보고서 제출일 1개월 전 기준 지속적인 주가가 하락하고 거래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개 종목 중 22개 종목의 평균 하락률은 30.05%에 달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는 0.33%, 코스닥은 4.11% 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높은 수치다. 17종목은 평균 거래량 증가

율이 251%에 달했다.

재무구조도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손실을 기록한 18종목의 영업손실 평균은 2019년 71억 원에서 지난해 80억 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21종목 평균은 171억 원에서 198억 원으로 확대됐다.

부채비율도 늘어난 경우가 많았다. 부채비율 악화기업은 14종목이며, 이들의 평균 부채비율은 2019년 192%에서 지난해 408%로 증가했다. 영업활동현금흐름 순유출 기업도 16종목이었다. 자본잠식 상태는 6종목이다.

거래소는 이들 기업이 △최대주주 지분담보제공(8종목) △경영권 분쟁(8종목) △횡령·배임(2종목) △불성실공시법인지정(7종목), △무분별한 테마성 사업목적 추가 △잡은 최대주주변경(11종목) 등의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이런 특징을 보이는 한계기업은 연간 결산 및 감사보고서 제출 시기에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재무적 부실상태에 있는 기업이 최근 주요한 테마성 이슈(바이오사업, 블록체인 사업 등) 등에 지나치게 노출된 경우 부정거래 또는 시세조종 등의 개연성이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박기영 기자 pgy@

LX, 거래 첫날 반토막... LG, 시총 3.8兆 증발

구 씨 일가 LX주식 3000억 ↓ 구분준 회장, 지분확보에 유리

LG와 분할 신설법인 LX홀딩스가 거래재개 첫날 동반 하락해 시가총액 약 3조 8000억 원이 증발했다. 특히 LX홀딩스는 시초가에서 50% 낮게 형성되며 지분가치가 ‘반 토막’ 났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LG는 이날 시초가 11만9500원에 거래를 시작해 9.21% 내린 10만8500원에 마감했다. LX홀딩스는 시초가 1만2650원에 거래를 시작해 5.14% 내린 1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두 회사 시가총액은 각각 LG 17조672억 원, LX홀딩스 9154억 원으로 총 17조9826억 원이다.

거래 정지 직전 LG 시가총액 21조 8000억여 원과 비교해 3조 8000억여 원가량 내린 수준이다.

LG는 장중 낙폭을 키운 반면 LX홀딩스는 시초가부터 급락한 채 거래를

시작했다. LX홀딩스 재상장 기준가는 2만5300원으로 시초가는 이보다 50% 낮은 수준에 형성됐다. LG도 재상장 기준가액 12만6500원보다 5.56% 낮은 가격에 시초가가 결정됐다.

LX홀딩스는 장중 10%대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오후 들어 하락 전환하는 등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은 주가 움직임을 보였다.

LX홀딩스의 주가 급락으로 구분준 LX회장은 지분 매입 부담을 덜었다. LX홀딩스는 구 LX회장 몫으로 신설된 ‘범LG’가 지분 정작 보유지분이 7.72%에 불과하다. 지분 46.06%를 나눠 보유한 구 씨 일가 주식을 매입해야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다.

LG 주가도 급락했지만, LX홀딩스 내림세가 더욱 크기 때문에 현재 주가 흐름대로라면 구광모 LG 회장보다는 구 LX회장에게 유리한 형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구 LX회장은 보유한 LG 지분 매각

을 최소화한 채 LX홀딩스 지분을 인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상장 기준가 기준으로 구 씨 일가가 보유한 LX홀딩스 지분은 8889억 원 수준이다. 이 중 구 LX회장 보유지분 7.72% 분을 제외하면 약 7400억 원 규모다.

그러나 시초가가 기준가 절반 수준에 형성되면서 매입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LX홀딩스 지분 가격도 무려 3000억 원이 넘게 줄었다.

김한이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계열 분리 관점에서 LX홀딩스 상승 필요성 있는데 상장 자회사들 역할이 중요하다”며 “LGMM는 가격상승 확인해 가며 재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상승폭이 커질 수 있는 시장환경은 아니기에, 적정수준 시가총액에 안착한 후 상장 지분가치가 증가해야 주가 상승이 확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기영 기자 pgy@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비트코인캐시	884,500	-52,500 (5.6%▼)	이오스	7,895	210 (2.7%▲)
리플	1,194	-65 (5.2%▼)	트론	96	-5 (5.0%▼)
라이트코인	228,300	-15,500 (6.4%▼)	스텔라루멘	515	-47 (8.4%▼)
에이다	2,056	-79 (3.7%▼)	비트코인에스비	211,000	-11,000 (5.0%▼)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KB증권으로 퇴근길에 만나는 실시간 미국주식

해외주식도 KB증권에선 **오후 5시부터!** 한발 빠른 해외투자를 시작하세요

오후 5시부터 만나는 미국주식 **거래가능 시간 확대**

뉴욕, 나스닥, AMEX 미국 3대 거래소 **실시간 시세 무료 지원**

매매시 환전 수수료 없이 원화로 거래하는 **글로벌원마켓**

주문가를 자동으로 결정하고 매매하는 **알고리즘 매매 솔루션**

✓ 손쉽게 계좌개설하기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1-01307(2021년 3월 12일)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원금손실가능 *투자 전 설명청취 *원금손실 발생 시 투자자 귀속 *미국 주식수수료 온라인 기준 0.25%(매도시 0.00051% 제비용 별도)이며, 매체별, 금액별 수수료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가능 *서비스 중도해지 시 환전수수료 발생 가능 *글로벌원마켓 가능국가: 미국, 중국, 홍콩, 일본, 베트남 *알고리즘매매 가능국가: 미국, 중국, 홍콩 *미국 정규거래시간(22시 30분 - 익일 5시, 서머 타임 적용 기준) 외의 시간은 시간외거래시간이며, 시장조성자들의 제한된 참여로 정규장 대비 호가가 비정상적으로 표시될 수 있음

KB 증권

‘노골적 표현 논란’ 유네스코 성교육 가이드 서울시교육청, 초등학생용 자료에 일부 적용 검토

교총·학부모단체 “사회적 합의 전제돼야... 조기 성애화 우려”
교육청 “실효성 있게 검토... 반드시 참고해야 할 자료는 아냐”

서울시교육청이 노골적인 성행위 묘사 등으로 국내에서 논란을 일으켰던 ‘유네스코 성교육 가이드’를 일부 적용한 초등학생용 성교육 자료를 개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성인지 감수성 함양을 위한 성교육 자료개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해당 연구용역은 초등학교 4~6학년과 중학교 1~3학년 성교육 자료를 학년별로 개발하는 것이다.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급별, 학년별 발달 수준에 맞는 성교육 영역 및 내용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는 연간 15차시 성교육 운영을 위한 필수 내용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연구용역은 유네스코 성교육

가이드와 국내의 교육 자료를 분석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학교 성교육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유네스코의 성교육 가이드는 어린이를 5~8세, 9~12세, 12~15세, 15~19세 등 4개 그룹으로 나누고 각 연령대에 적합한 수준의 성교육을 주문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은 최근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시행에 따른 성인지 관점의 성교육 자료 개발·보급 사업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유네스코 성교육 가이드 도입을 검토하면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교육계 일각에선 유네스코 성교육 가이드를 성교육 자료로 반영하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 현장 정서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성애 조장’ 내용으로 논란이 됐던 ‘나다음 어린이책’에 선정된 도서 표지(위쪽)와 초등학생 성관계 장려 논란 내용. 사진제공 김병욱 의원 블로그

유네스코 성교육 가이드는 △다양한 결혼 방법 △생물학적 성과 젠더의 차이 △성 및 재생산 건강과 관련한 몸의 부분 묘사하기 △성기가 질 속에 사정하는 성관계의 결과로 임신할 수 있음을 알기 △신체적 접촉을 통해 쾌락을 느끼는 방식 설명하기 등을 제시한다. 또 12세 어린이에게 낙태의 이유를 설명해 낙태 문제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초등학교에 유네스코 성교육 가이드와 방향이 유사한 성교육 도서(나다음 어린이책)를 시범 배

포했다가 “노골적 성관계 표현, 동성애 조장” 등 논란이 일자 전량 회수했다. 해당 도서들은 성관계를 ‘신나고 멋진 일, 재미 있는 일’이라고 표현해 아동·청소년의 성의식 왜곡을 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교권복지본부장은 “학생 성교육은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생명과 책임, 인격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유네스코 성교육 가이드 등 외국의 과도한 급진적 성교육을 학교 교육에 강제할

경우 사회·문화·정서상 차이 발생으로 큰 논란과 반발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에서는 성에 대해 연령에 맞는 올바른 적절한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부모 단체의 우려도 크다. 박은희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공동대표는 “어린 학생들에게 지나친 성적 묘사가 된 선정적인 자료를 제공한다면 조기 성애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표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서울시교육청이 학부모들과 재논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유네스코 성교육 가이드가 우리나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유네스코 성교육 가이드를 그대로 가져온다기보다 학교 교육과정에 적용되고 다른 교과에도 다룰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학교 성교육에) 반드시 참고해야 하는 자료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손현경 기자 son89@



“네 잘못이 아니야” 전직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사망한 ‘구역역 김군’ 5주기를 하루 앞둔 27일 오후 서울 광진구 구역역 스크린도어에 김군을 추모하는 글들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5·18 보상받아도 정신적 피해배상 청구 가능”

현재 “보상금만으로 손해 배상했다고 보기 어려워”

헌법재판소가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피해 보상금을 받으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다.

현재는 27일 옛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 보상법) 16조 2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A 씨 등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5·18보상법에 따라 보상금, 의료지원

금, 생활지원금 등을 받았다. 이후 2018년 12월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 등의 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소송 과정에서 5·18보상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정을 신청했다.

5·18보상법 16조 2항은 보상금 등 지급에 동의하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에 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A 씨 등은 이 조항이 국가배상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

칙에 위반돼 관련자와 유족의 국가배상 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상금 등 지급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서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2018년 8월 이와 유사한 내용을 규정한 옛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보상법) 18조 2항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한 바 있다. 현재 관계자는 “같은 취지에서 국가배상청구권의 침해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동료 공무원 성폭행’ 전 서울시 직원 2심도 실행

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행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27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 공무원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만취한 동료 공무원 B 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성폭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B 씨가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은 점 사

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A 씨의 성폭행으로 B 씨가 PTSD에 시달린 것으로 판단했다. B 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이다.

A 씨는 1심에서 성추행을 인정했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면서 B 씨의 PTSD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에서 입장을 바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

경찰 “손정민 사망, 범죄 정황 확인 안돼”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22) 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현재까지 범죄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27일 “현재까지 수사 상황을 볼 때 손 씨의 사망과 범죄와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함께 술을 마신 친구 A 씨가 귀가할 때 뒤편 택시 기사는 당시 ‘A 씨의 옷이 젖어 있었는지 제대로 보지 못했으나 운행을 마치고 내부를 세차할 때 차량 뒷좌석이 젖어있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했다.

경찰은 손 씨가 평소 물을 무서워해 스스로 물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유족 측의 주장에 대해 “손 씨가 해외 해변이나 국내에서 물놀이하며 찍힌 사진과 영상 등을 확보했다”며 “정확한 입수 경위에 대해선 계속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가 다른 곳에

숨겨져 있거나 버려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마지막 통화 시간(아버지와 통화)인 오전 3시 38분부터 전원이 꺼진 오전 7시 2분까지 계속 한강공원 주변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경찰은 ‘A 씨가 누워 있던 손 씨의 주머니를 뒤적였다’는 의혹이 나오게 된 목격자가 찍은 사진에 대해 “사진을 경찰에 제출한 목격자는 A 씨가 자고 있던 손 씨 옆에서 짐을 챙기고 손 씨를 흔들며 깨우는 장면이라고 진술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그동안의 수사 진행 상황을 A4 용지 23쪽에 담아 공개했다.

이 자료에는 사건 개요부터 주요 수사 사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A 씨와 함께 술을 마신 친구 B씨 수사 상황, A 씨의 당일 행적, 제기된 의혹별 질의응답 등이 모두 담겨 있다.

경찰은 이 자료를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나경연 기자 contest@

공수처, 이규원 검사 이틀 만에 재소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27일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를 이틀 만에 재소환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이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이 검사는 25일 공수처에서 밤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 검사는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이던 2018년 12월~2019년 1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씨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공무상 비밀누설 등)를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이 명

예훼손으로 이 검사 등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같은 혐의를 인지하고 지난 3월 17일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했다.

공수처는 사건을 이첩받은 뒤 두 달 가까이 된 지난달 말 되어서야 사건번호(공제 3호)를 부여하고 정식 수사에 돌입했다.

이 검사는 지난달 1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함께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를 주도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공수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압수물 분석을 마치고 본격적인 참고인 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육감의 전 비서실장 A 씨(현 정책안전기획관)는 이날 오후 과천 공수처 청사에 출석해 압수물을 반환받았다. 김종용 기자 deep@



용인 '뮤지엄 그라운드'

산 좋고 물 좋으니 그냥 놔둘 리 없다. 용인시 고기동 산간에 있는 뮤지엄 그라운드로 접어드는 들머리의 풍경이 가히 난리 블루스다. 산자락 물가에 마음 내려놓고 쉬기 좋았던 이곳에 요즘 개발 바람이 한창이다. 보이느니 빈틈없이 들어선 카페와 식당, 부동산 업소들이다. 뮤지엄 그라운드는 용케도 이 난장의 끝자락, 비로소 시퍼런 산과 하늘이 후련하게 펼쳐지는 고살에 있다. 폐부로 스며드는 산기운이 맑아 기분을 돋워준다.

뮤지엄 그라운드는 화가 전광영(79)이 설립한 사립미술관이다. 그는 이름을 좀 낯선 정도에 그치는 화가가 아니다. 해외 화단에서도 알아주는 눈이 많다. 미국 뉴욕의 5대 미술관에 속하는 브루클린미술관에서 한국인 최초로 전시회를 가지기도 했다. 그런 그가 미술관을 개설한 이유가 있다. '후배들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것. 이게 무슨 얘기? 열정과 재능을 다해 성장을 도모하는 신진 작가들에게 사심 없는 명석을 깔아주겠다는 뜻이다.

인생 문제의 대부분이 노력 여부, 또는 운수에 달려 있다. 그런데 전광영은 화가들에게 노력과 운보다 공정한 전시 기회를 부여받는 일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보는 것 같다. 이젠 그의 생생한 체험에서 유래한 진언이자 처방이다. 뮤지엄 그라운드 개관식 때 가진 간담회에서 그는 죽을힘을 다해 작업을 했지만 찬밥처럼 팔시받았던 젊은 날엔 '너무도 외롭고 힘들었다'며 개관의 변을 이렇게 토로했다.

"대한민국은 화가가 작업하기 어려운 곳이다. 학연과 지연, 인맥을 통하지 않고서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은가?"

이런 발설은 드문 게 아니다. 미술동네에도 너절한 승자독식의 풍조와 무리 짓기의 쇼가 일각에서 판을 친다는 걸 모르는 이가 몇이나 되겠나. 전광영은 이 코믹한 고질을 소리 소문 없이 조금이나마 깨트리고 싶었던 모양이다. 이렇다 할 전시 공간을 부여받지 못해 남몰래 애태우는 젊은 후배들에게 뮤지엄 그라운드를 '선물'로 제공, 거침없이 날아오르라 등을 밀어주고 싶었던 거다. 그렇게 해서 미술관을 개관한 게 2018년. 그의 아들 전용운이 관장 직분을 맡았다.

뮤지엄 그라운드는 2500여 평 부지 안에 지은 지상 3층, 지하 2층 건물, 그리고 야외 잔디광장으로 구성됐다. 건축 설계를 맡은 사람은 전광영의 막내아들 전용전으로, 그는 '미술관 건물 자체를 작품'으로 생각하고 설계했다고 한다. 획일적이고 규격화된 틀을 깨고 개성 넘치는 미술관 건



**화가 전광영이 후배들 위해 설립한 사립미술관
"신진 작가들에겐 공정한 전시 기회가 가장 중요"
막내아들 '건물 자체를 작품'으로 생각하고 설계
지하 2층 전시실 둘러보고 옥상 카페 자연과 사색**

물을 짓고 싶었다는 얘기가. 말은 그러했으나 묘한 발상과 기발한 파격 따위를 동원하는 일은 자제해서인가, 건물의 안팎 모습은 대체로 평범하고 수긋해 밋밋하지만 안정감을 준다. 개성을 추구하되 자칫 요란한 차례로 흐를 경우 오히려 건물의 품격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 미감을 돋우되 기능성과 실용성을 중심에 둔 설계에 방점을 찍었던가 보다.

재미있는 건 미술관 건물 입구로 연결되는 통로다. 건물 외벽과 병행하는 가벽 형태의 구조물을 덧대어 조성한 좁고 어두운 뜻밖의 통로. 관람객은 잠시 골목길을 걷는 것 같은 기분을 주는 이 통로를 통해 마치 물살에 쓸려 흐르듯 미술관 현관문으로 빨려 들어가게 된다. 화이트와 센스가 도드라지는 대목이다. 이왕 미술관에 왔으니 만 생각 말고 미술과 만날 즐거움 하나로 설레어 보라는 뜻으로 만든 통로라 보면 되겠다.

개관 이후 뮤지엄 그라운드가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한 건 2019년 7월, 르네 마그리트(1898~1967)의 사진 작품 130여 점과 영상을 전시한 특별기획전을 통해서였다. 벨기에 출신의 초현실주의 화가인 마그리트는 기상천외한 그림으로 명성을 날렸다. 상식 파괴를 본령으로 삼고 마치 가상현실과도 같은 그림을 그려 사람들을 경악시켰다. 마그리트의 사진 작품과 영상을 국내 최초로 애호가들에게 선보인 뮤지엄 그라운드의 특별기획전은 성황을 이루었다. 이후 알아서 찾아오는 관람객 수가 확 늘었다는 게 아닌가. 기획전의 품질이 미술관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주요 변수임을 알게 하는 대목이다.

옥상에서 커피 한잔을

이제 그림 구경을 해볼까. 전시실은 지하 2층에 있으며 모두 세 개다. 현재 세 가지 전시회가 펼쳐지는데 전부 2021년 10월 3일까지 계속된다. 제1전시실에선 설치미술가 정찬부의 '꿈들이 J의 2050년'으로부터 온 초대장'전을 볼 수 있다. 정찬부는 다량의 플라스틱 빨대를 꼼꼼히 있고 붙이고 색칠해 설치 작품을 만들었다. 현대를 플라스틱 문명기, 또는 플라스틱 천국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게다. 플라스틱만큼 현대를 사는 인간의 편리와 복리에 기여한 물건이 다시 있겠는가. 그러나 해양의 물고기를 뱃속에서조차 미세플라스틱이 나온다. 인간은 그 위험한 물고기를 먹는다. 사용엔 편리하나 사후 쓰레기 처리엔 난감해 골머리를 앓게 하는 게 플라스틱이다. 정찬부의 작품은 이 미워할 수 없으나 끌어안고 살 수만도 없는 플라스틱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한다. 환경 메시지를 담은, 이를테면 '플라스틱 프리' 운동 차원의 작품이 아니다.

정찬부는 플라스틱 빨대를 촘촘히 엮어 동물이나 식물의 형상을 만들어 흥미롭고 어여쁘게 재생시켰다. 보잘것없는 쓰레기로 전락할 운명을 지닌 빨대에 생명감을 불어넣었다. 폐기될 사물마저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제2전시실에선 설립자 전광영의 작품전이 펼쳐지고 있다. 'Chapter3: 집합 화법의 완성기 1996~2003'이라는 타이틀로. 그는 우리의 전통 한지를 오브제로 평면과 입체 작품을 해온



작가다. 어렸을 때 본 한약방의 약봉다리에서 영감을 얻은 그만의 한지 작업은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독자성으로 호평을 받았다. 이번 '집합' 시리즈에 나온 유별한 작품들을 보면 그가 상상력의 대가임을 직감할 수 있다. 크고 작은 스티로폼들을 고서 한지로 일일이 싸맨 무수히 많은 조각들을 프레임에 깨알처럼 촘촘히 붙여 대지의 원초를 느끼게 하거나, 한국적 정서의 끝단을 생각해보게 한다. 전시실 하나를 통째로 장악하고 허공에 매달린 구체(球體) 작품은 시공의 벽을 뚫고 외계에서 날아와 멈춘 별뿔별 같은 걸 연상시킨다.

그림을 위해서라면 다른 모든 걸 포기할 각오가 돼 있는 게 화가다. 귀신에 홀린 사람처럼 그림 하나에만 들인 몰입하는 게 진짜 그림쟁이다. 전광영은 그림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극단적인 시도까지 두 차례나 했던 인물이다. 목을 걸고 그림에 매달렸으니 독종이다. 매너리즘을 극구 경계하며 작품의 변신을 무수히 시도하기도 했다. 작품 세계의 확장과 성장에 대한 본능이 그토록 강렬하다. 그는 미술관 뒤편에 있는 대형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한다. '하루에 다만 1cm라도 변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새로운 조형의 지평으로 나아가는 거다.

미술관 건물 옥상 테라스는 '카페 그라운드'다. 그림을 감상한 뒤 향긋한 커피 한 잔 즐기기에 적절한 공간이다. 저만치 사위에서 술렁이는 산야와 흰 구름, 그리고 햇살과 바람... 근사한 세상을 여기에서 다 보고 느낄 수 있다.

글/박원석 객원기자 tititoto@hanmail.net
사진/브라보 마이 라이프

꿈, 마음껏 그려보게나

저장이 깔아준 명석



“실수요자 주목” 농치면 후회할 ‘청약 찬스’

아파트 시세와 분양가격 간 차이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하려는 청약 눈치싸움은 더 치열해졌다.

부동산 정보회사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3.3㎡당 평균 3738만 원이다. 같은 기간 서울에서 선보인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은 3.3㎡ 기준 2637만 원. 주택시장이 현상 유지만 해도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3.3㎡당 1151만 원 가까이 싸게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말만 해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과 분양가 차이는 3.3㎡당 891만 원이었지만 다섯 달 만에 200만 원 이상 벌어졌다.

분양가 마련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저가 아파트 공급

도 늘고 있다. 서울 아파트 분양 물량 중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9억 원 이하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하반기 62.1%에서 82.6%로 늘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분양가 상한제와 고분양가 심사제를 통해 분양가를 억제한 영향이다.

전문가들은 청약 수요자라면 지금 같은 호기를 놓쳐선 안 된다고 조언한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 대비 분양가 수준이 낮아지면서 청약 열기는 쉽게 꺾이지 않을 전망이다”이라며 “무조건 서울에서 아파트 당첨을 기다리기보다는 광역교통망 개선으로 서울 접근성이 좋아지는 수도권 분양 물량에 눈을 돌리는 것도 내 집 마련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GS건설 평택지제역자이

평택 영신도시개발지구 1052가구 대단지

GS건설은 경기 평택시 영신도시개발지구 A3블록에 짓는 ‘평택지제역 자이’ 아파트를 6월 분양한다.

평택지제역 자이는 지하 2층~지상 27층, 10개 동, 전용면적 59~113㎡(펜트하우스) 총 1052가구의 대단지다. 전용면적별로 △59㎡A 108가구 △59㎡B 106가구 △74㎡A 106가구 △74㎡B 104가구 △84㎡A 260가구 △84㎡B 260가구 △97㎡A 52가구 △97㎡B 51가구 △99㎡P 3가구 △113㎡P 2가구로 이뤄졌다.

평택지제역 자이가 위치한 영신도시개발지구는 평택시 동삭동 일원 약 56만여㎡ 규모로 조성된다. 이곳에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준주거 등 주거시설과 공원, 녹지, 학교, 유치원, 주차장, 복지시설, 공공청사 등 기반시설이 들어선다.

단지는 우수한 교통망을 갖췄다. 도보권에 수서고속철도(SRT)와 1호선 환승역인 평택지제역이 있다. SRT를 이용하면 동탄신도시까지 9분, 수서역까지 21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 평택지제역을 출발해 강남역까지 가는 M버스(5438번)도 운행 중이다.

도보권에 초·중·고등학교(예정) 부지가 있어 자녀들의 안전한 통학도 가능하다. 대형 유통시설인 이마트 평택점도 도보권에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단지에서 약 6.2km 거리에 ‘스타필드 안성’이 문을 열어 각종 생활편의시설도 누릴 수 있다.

단지가 들어서는 영신지구 주변으로는 지제세교지구, 모산영신지구, 동삭지구 등 14개 도시개발지구 개발이 완료됐거나 개발 중에 있다. 평택 고덕신도시를 포함하면 10만6000여 가구에 이르는 대규모 주거타운이 조성돼 미래가치도 높다.

평택지제역 자이 견본주택은 평택시 소사동 일대에 마련된다. 입주는 2023년 6월 예정이다.

DL이앤씨 e편한세상 고천 파크루체

‘신혼희망타운’ 집값 70%까지 담보대출

DL이앤씨(옛 대림산업)는 경기 의왕시 고천동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고천 파크루체’ 아파트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경기 의왕시 고천 공공주택지구 A-2블록에 조성된다. 지하 3층~지상 20층, 11개(테라스동 3개 동 포함)동, 전용면적 56~59㎡ 총 87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신혼희망타운은 580가구가 공급된다.

앞서 진행된 공공분양 물량에는 580가구 모집에 2494개의 청약통장이 몰렸다. 평균 4.3대 1의 경쟁률로 모든 주택형이 청약을 마감했다. 이 때문에 조기 완판 기대감도 크다.

아울러 이 단지는 공공택지에 지어져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됐다. 투기과열지구인 의왕시에 들어서는데도 주택 가격의 최대 70%(4억 원 한도)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e편한세상 고천 파크루체’는 편리한 교통과 생활인프라를 갖췄다. 이 단지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의왕시청역(예정)에서 반경 약 800m 내에 조성된다. 도로 교통은 단지 인근 경수대로와 의왕IC를 통



해 과천봉담간고속화도로와 영동고속도로, 외곽순환도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의왕시 중심 입지에 위치해 풍부한 생활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단지 바로 옆에 의왕 시청이 있고 반경 1km 내에 의왕 경찰서와 의왕 소방서가 있다.

교육 여건도 좋은 편이다. 고천지구 내에 초등학교 부지가 계획되어 있으며 고천초와 의왕중, 우성고, 경기외고 등이 반경 1km 안에 있다.

대우건설 광양 푸르지오 더 센트럴

광양만경자구역의 중심, 직주근접성 우수

대우건설은 전남 광양시 황금지구에서 ‘광양 푸르지오 더 센트럴’ 아파트를 분양 중이다.

광양 푸르지오 더 센트럴은 광양시 황금토지구획정리사업 2-2블록에 조성된다. 지하 2층~지상 29층 아파트 6개동 총 565가구다. 전용면적 기준 △84㎡ 166가구 △117㎡A 320가구 △117㎡B 75가구 △129㎡PH 4가구로 구성된다.

단지 인근에 위치한 남해고속도로와 동순천IC, 광양IC 등으로 여수·광양·순천은 물론 타 지역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충무공로를 비롯해 이순신대교, 광양항~울촌산단 연결도로(예정) 등을 통해 여수·순천 등 주변 지역으로 쉽게 오갈 수 있다.

광양 푸르지오 더 센트럴이 들어서는 황금지구는 원형 형태를 이루는 광양만경제자유구역(GEFZ)의 중심지로 반경 10km 이내에 포스코 광양제철소, 여수광양항만공사, 해룡일반산업단지, 울촌제1산업단지 등 주요 산업단지가 자리잡고 있다. 특히 여수 광양항만공사와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근무자 수만



약 1만 5000여명에 달한다.

인근에 ‘구룡산 관광단지’와 ‘어린이 테마파크’ 등도 조성된다. 구룡산 관광단지는 190만9000㎡ 규모로 골프장, 호텔 등이 들어서는 종합 레저 관광단지다. 오는 2024년 준공될 예정이다. 어린이 테마파크는 60만8000㎡ 규모로 2025년께 준공될 것으로 보인다.

광양 푸르지오 더 센트럴 아파트 입주는 2023년 11월에 예정돼 있다.

포스코건설 더샵 오산 엘리포레

오산 세교지구-동탄신도시 인프라 동시에

포스코건설은 경기 오산시 서동에 짓는 ‘더샵 오산 엘리포레’ 아파트를 올해 상반기 분양한다.

더샵 오산 엘리포레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높이로 6개 동, 총 927가구가 들어선다. 전용면적과 평면별로 △59㎡형 285가구 △75㎡ A형 162가구 △75㎡ B형 162가구 △84㎡형 318가구가 공급된다.

더샵 오산 엘리포레는 오산 세교지구와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사이에 있어 두 도시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다. 가장로를 통해 롯데마트, 이마트, 한국병원 등 오산시 내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하기도 좋다.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공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엔 오산과 동탄, 경기 용인시 기흥구를 잇는 분당선 연장안이 포함됐다.

포스코건설은 그간 오산에서 ‘더샵 오산 센트럴’과 ‘서동탄역 더샵 파크시티’ 아파트를 분양해 흥행시켰다. 지난해 입주한 더샵 오산 센트럴 전용 84㎡형은



이달 7억6000만 원에 팔리며 같은 면적 기준 오산 지역 최고가를 경신했다.

포스코건설 측은 “오산은 미분양 청정지역인 데다 인구가 늘고 아파트 가격도 계속 오르는 등 관심 지역으로 부상했다”며 “특히 지역 내 수요는 물론 동탄 아파트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내 집 마련에 나서려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더샵 오산 엘리포레 견본주택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이버 견본주택으로 같음한다.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익산

전북 익산 첫 힐스테이트, 광역 교통망 장점

현대건설은 전북 익산시 마동 일원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익산' 아파트를 6월 분양한다.

힐스테이트 익산은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6개 동, 전용면적 59~126㎡, 총 454가구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 △59㎡ 22가구 △84㎡A 260가구 △84㎡B 38가구 △84㎡C 71가구 △99㎡ 57가구 △126㎡ 6가구다.

단지는 편리한 교통 여건을 갖췄다. 단지 바로 앞에 익산 도심을 가로지르는 선화로가 있어 이를 통해 익산 전역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차량으로 약 10분 거리에 KTX와 SRT가 정차하는 익산역, 익산 시외·고속터미널이 있어 광역 교통망 이용도 수월하다.

생활 편의시설도 가깝다. 이마트 익산점, 홈플러스 익산점, 롯데마트 익산점 등 대형 마트와 CGV 익산점이 인근에 있다. 또한 익산시청, 익산시청 제2청사, 습리문화예술회관 등 행정기관과 문화시설을 이용하기 쉽다.

교육 환경도 우수한 편이다. 단지에서 반경 1.5km 내에 동북초, 익산지원중, 이리고, 이리남성여고, 남성고 등 초·중·고교가 있다. 인근에 전북대, 원광대,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등도 있다.

단지는 현대건설만의 특화 설계인 'H 클린현관', 빌트인클린러 등 클린 청정 옵션(유상)이 적용돼 쾌적한 실내 환경도 누릴 수 있다. 실내의 쾌적한 공기 질을 위한 현대건설의 H-Clean α 2.0의 살균 청정환기 시스템도 유상옵션으로 제공된다.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로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 연습장, 게스트하우스, H 아이숲(실내어린이놀이터), 작은 도서관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힐스테이트 익산 분양 홍보관은 익산시 무왕로 일대에 있다.

삼성물산 래미안 원베일리

한강변·명문 학군 품은 '반포 新랜드마크'

삼성물산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원에 짓는 '래미안 원베일리' 아파트를 6월 분양한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신반포3차와 신반포 23차, 반포경남, 경남상가, 우정예솔1·2차를 통합 재건축하는 아파트다. 기존의 2433가구 아파트 단지를 허물고 최고 35층, 2990가구 규모로 탄생한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반포대교 남단 한강변에 조성돼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 반포주공2단지를 재건축한 래미안 퍼스티지와 함께 5400가구 규모 래미안 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서울지하철 3·7·9호선(고속터미널역·신반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 단지다. 올림픽대로·반포대로도 인접해 있다. 단지 인근에는 계성초와 잠원초, 신반포중, 세화여중·고 등 명문학군이 형성돼 있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과 서울성모병원이 인접해 이용하기 편리하다.

각 가구에는 삼성물산이 자체 개발한 래미안 홈사물인터넷(IoT) 플랫폼이 적용된다. 실내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IoT 홈큐브가 제공되며 얼굴 인식·지



문 인식·자동환기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다.

단위가구 전장 높이를 일반 아파트(2.3m)보다 20cm 높은 2.5m로 설계해 공간감을 확대하고 독일산 외부 창호를 적용해 기밀·단열 성능을 확보했다. 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와 친환경 자재를 활용해 친환경 아파트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리조트 레인보우'라는 콘셉트의 조경이 적용된다.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래미안의 조경 노하우를 활용, 7가지 콘셉트에 맞춰 구역별 조경 특화를 선보일 계획이다.

'코엑스 2배' 마곡 MICE단지 상반기 첫삽

롯데건설 르웨스트

롯데건설 컨소시엄이 설립한 마곡마이스PFV는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컨벤션센터, 호텔, 노인복지주택, 업무·판매시설 등이 결합된 서울 최대 규모 마이스(MICE)복합단지 'LE WEST(르웨스트)'를 조성한다. 마곡마이스PFV는 롯데건설과 SDAMC, 메리츠증권 등 주요 회사가 공동으로 투자·설립한 회사다.

르웨스트의 대지면적은 8만2724㎡로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의 9배에 달한다. 연면적은 약 82만㎡로 삼성동 코엑스(46만㎡)의 약 2배 규모다. 단지는 4

개 블록(CP1-CP2-CP3-1-CP3-2)으로 구성된다.

블록 중 규모가 가장 큰 CP1블록은 지하 7층~지상 13층, 전체 연면적 약 32만㎡로 컨벤션센터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원스톱센터 및 업무시설, 호텔 등이 들어선다. 첨단 연구개발(R&D) 산업단지인 특성을 감안해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마이스 관련 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CP2블록과 CP3-2블록에는 판매시설과 업무시설 등이, CP3-1블록에는 노인복지주택이 조성된다. 노인복지주택은 병원과 연계된 메디컬 서비스,



호텔식 서비스, 강습 프로그램 등 다양한 입주민 서비스가 제공된다. CP3-2블록에 들어설 업무시설은 연면적 약 13만㎡ 규모로 대기업 등 우량 임차인을 유치할 수 있을 전망이다.

르웨스트는 지하철 5호선 마곡역과 9호선 및 공

항철도 환승역인 마곡나루역 사이에 위치한다. 지하 공공보행통로를 통해 마곡역과 마곡나루역, 서울식물원까지 연결된다.

르웨스트는 올해 상반기 착공한 뒤 2024년 준공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군산 호수공원 아이파크

관광명소 은파호수공원 조망 교육여건 우수

HDC현대산업개발은 전북 군산시에서 '군산 호수공원 아이파크' 아파트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전북 군산 지곡동에 지하 3층~지상 29층, 10개 동, 전용면적 84~238㎡ 총 66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 △84㎡A 255가구 △84㎡B 118가구 △118㎡ 157가구 △146㎡ 120가구와 펜트하우스 △119㎡ 11가구 △181㎡ 2가구 △238㎡ 2가구로 구성된다.

군산 호수공원 아이파크는 쾌적한 주거 환경과 우수한 교육 여건을 갖췄다. 단지 근처에 군산 대표 관광지인 은파호수공원(257만㎡ 규모)이 있어 산책 등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다. 일부 세대에선 호수공원 조망이 가능하다. 사업지 인근으로 새들공원과 수송근린공원, 점방산, 장계산, 월명산 등 녹지 환경도 풍부하다.

지하철이 단지 도보권에 있어 자녀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다. 동원중과 군산여상, 군산시립도서관도 가깝다. 동산중학교도 단지 근처로 이전할 예정이다.



주변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반경 2km 내에 군산의료원과 롯데마트, CGV, 군산예술의전당 등 다양한 쇼핑·문화시설이 있다. 또 군산 일반산업단지와 군산 국가산업단지 등 배후수요도 갖췄다. KTX 익산역과 서해안고속도로(동군산IC) 등 광역교통망 이용도 편리하다. 사업지 인근에는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을 비롯한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의 연구 개발과 기술 이전 사업 관련 기업과 연구소가 들어설 예정이다.

건본주택은 전북 군산시 미장동에 있다.

부영 부산신항 3·4단지 사랑으로 부영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전용 84㎡ 1368가구

부영그룹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서 '부산신항 3·4단지 사랑으로 부영' 아파트를 공급한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인 부산신항 3·4단지 사랑으로 부영엔 지하 1층~지상 최고 20층 높이로 1368가구가 공급된다.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입주자가 우선 분양 전환권을 받는다.

후분양 아파트(건설 공정이 80% 이상 진행된 후에 분양하는 아파트)인 부산신항 3·4단지 사랑으로 부영은 계약을 맺는 대로 바로 입주할 수 있다.

임대 유형은 전세와 월세로 나뉘어 있다. 전세 보증금은 1억3000만 원이다. 월세는 보증금 1억1000만 원·월(月) 임대료 10만 원이나 보증금 5000만 원·월 임대료 33만 원 중에 선택할 수 있다. 가구당 전용면적은 84㎡다.

아파트는 부산신항과 가까워 항구에서 일하는 항만·물류 종사자들이 출퇴근하기 좋다. 신항동로를



거쳐 서부산과도 이어져 있다.

최근 서부산에는 에코델타시티와 명지국제신도시, 신호지방산업단지, 부산과학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최근 경남도와 부산시 등은 진해와 인접한 부산 가덕도에 김해국제공항을 대신할 신공항을 지으려 한다.

부산신항 3·4단지 사랑으로 부영 건본주택은 용원동에 있다.

동성제약과 함께 하는 1인 소자본 창업



염색, 두피, 모발, 탈모케어 전문 헤어스파

옷 안타는 천연염색 & 두피센터 성공 창업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 옷 안타는 천연염색 & 두피센터는

- 동성제약의 우수한 제품력과 지원전략을 갖춘 1인 소자본 창업 아이템입니다.
- 염색, 두피케어, 모발케어, 탈모케어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수익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지역 균을 보장하여 안정적인 영업이 가능합니다.

창업특전

• 無가맹비, 無로열티, 無교육비, 無인테리어 옵션으로 소자본 창업

파격지원

- 배너, 명함, 이미지 액자, 가격표 무상 제작
- 디자인 지원(간판 시안, POP, 홍보물 등)
- 오픈 홍보용 제품 및 견본품, 판촉물(쇼핑백, 포스터) 지원
- 교육 무상 지원(신규 및 보수교육), 시스템 관리, 오픈 지원

창업자격

• 미용 자격증 소지자 누구나



철원점



동탄장지점

www.hairspa.co.kr

창업문의 및 상담 02)6911-3868

옷 안타는 천연염색




아마존 제국 일구고 '우주 정복' 떠나는 베이조스

창사 27주년 7월 5일 CEO 퇴임
전자상거래·유통·로봇 등 키워
시총 400배·세계 1위 부호 올라
우주 개발 자금 10조 원 마련
블루오리진 7월 우주관광 이륙

제프 베이조스
약력

Jeff Bezos

1964년	미국 뉴멕시코주 앨버커키 출생
1986년	프린스턴대 전자컴퓨터공학과 졸업
1986~1988년	하이테크 벤처 피델 근무
1990~1994년	헤지펀드 회사 다이아스 부사장
1994년	아마존닷컴 설립
1999년	타임지 올해의 인물 선정
2000년	블루오리진 설립
2013년	워싱턴포스트 인수
2017년	세계 1위 부호 등극
2019년	부인 맥켄지와 이혼 발표
2021년 7월 5일	아마존 CEO 사임 예정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가 7월 5일 자리에서 물러난다. 실리콘밸리의 IT 혁명에 미래를 걸고 1994년 7월 5일 아마존닷컴을 창립한 지 정확히 27년 되는 날이다.

작은 온라인 서점에서 출발한 아마존은 전자상거래, 유통, 물류, 전자, 클라우드, 로봇 등 여러 다양한 산업으로 영역을 넓혔다. 최근에는 할리우드 영화 제작사까지 거머쥐며 콘텐츠 시장에도 뛰어들었다. 2001년 40억3000만 달러에 불과했던 시가총액은 현재 약 1조6400억 달러(약 1831조 원)로 20년 만에 400배 이상 급증했다.

시장의 포식자란 비판을 받으면서 아마존 제국을 일군 베이조스의 다음 목표는 우주 정복이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베이조스 아마존 CEO는 이날 온라인으로 열린 연례 주주총회에서 퇴임일을 공식화했다. 그는 "7월 5일은 항수를 불러일으키는 날짜"라며 "27년 전인 1994년 그날 아마존이 설립됐다"고 운을 뗐다. 30세 젊은 나이에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우고 세운 아마존닷컴을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로 만든 후, 같은 날 떠나는 것이다.

아마존은 올해 3월 기준 판매하는 제품 수만 7500만 개에 달한다. 베이조스는 사업도 공격적으로 확장했다. 전자책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했고 인공지능(AI) 스피커도 만들었다. 클라우드 서비스에도 손을 댔다. 드론·로봇을 활용해 총알 배송 시대를 선도하는 등 4차 산업혁명의 주역으로 우뚝 섰다.

아마존은 이날 84억5000만 달러에 할리우드 유명 영화 제작사 MGM을 인수한다고 공식 발표하는 등 스트리밍 시장 공략에도 나섰다.

그 사이 아마존과 베이조스의 부도 폭발적으로 불어났다. 작년 아마존의 매출은 3860억64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0%가량 급증했다. 이런 추세가 유지되면 올해 매출은 5000억 달러를 넘어선다. 전 세계 최고 매출 기업인 월마트를 추월할 날도 멀지 않았다.

아마존 주가 폭등에 힘입어 베이조스는

세계 최고 부자 타이틀도 유지하고 있다. 그는 24일 기준 1860억 달러 재산을 갖고 있다.

2019년 1월 맥켄지와 25년 결혼생활의 종지부를 찍었는데 베이조스가 아마존 지분 25%, 약 40조 원을 합의금으로 넘기면서 '세기의 이혼'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아마존 제국을 일군 베이조스의 다음 목표는 우주에 있다. 그는 2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뜻을 처음 밝히면서 우주사업에 전념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베이조스는 이날도 "새 제품과 사업에 에너지를 집중할 것"이라며 "어스 펀드, 블루오리진 등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어 설렌다"고 했다. 어스 펀드는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신기술에 투자하고 있으며 블루오리진은 우주탐사업체다.

블루오리진 투자를 위해 최근 6개월 동안 10조 원에 달하는 아마존 주식까지 팔아치운 베이조스는 우주 개발을 두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블루오리진은 7월 20일 우주탐사 로켓 '뉴셰프드'에 처음으로 민간인을 태우고 우주관광에 나선다.

베이조스가 떠난 자리는 아마존 초창기부터 베이조스와 함께한 앤디 재시가 채운다. 현재 아마존웹서비스(AWS) 부문을 이끌고 있는 재시는 2000년대 초반 아마존의 핵심 수익 사업이 된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을 창안했다.

베이조스는 재시에 대해 "그는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 에너지를 갖고 있다"며 "훌륭한 리더가 될 것"이라고 애정을 보였다.

베이조스가 남긴 아마존 제국의 앞날은 밝으면서도 어둡다. 반독점 칼날이 시장 포식자 아마존을 겨누고 있다. 워싱턴 D.C. 검찰은 반독점 위반을 이유로 아마존을 워싱턴 D.C. 법원에 제소했다. 아마존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는 이유다. 김서영 기자 jung2@

현대차 정몽구 재단 장학생 세계 학술·예술무대 맹활약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지원하고 있는 미래산업 및 문화예술 장학생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며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빛내고 있다.

27일 정몽구 재단은 "미래산업 인재 장학사업을 통해 지능정보기술,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 등 미래 혁신 성장의 핵심 분야를 연구하는 대학(원)생을 선발해 지원 중인 가운데 2020~2021년 33명의 장학생이 국제 저명 학술지에 제1저자로 논문을 게재하는 연구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주요 성과를 보면, 지능정보기술 분야에서는 한양대학교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원창희 학생이 국제 학술지에 '전방향 스테레오 정합에 대한 종단 학습 및 불확실성 사전 확률' 논문을 게재했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이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석박사통합과정에 재학 중인 이은비 학생이 국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했다. 에너지신산업 분야에서는 세종대학교 환경에너지융합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조성현 학생이 국제 학술지 논문을 게재했다.

문화예술 분야 역시 활약이 이어졌다.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제 콩쿠르 등이 취소·연기되는 악조건 속에서도 현대차 정몽구 재단 문화예술 장학생들의 활약이 돋보였다. 윤도희(세종대학교) 학생이 그리스 헬라스 국제무용콩쿠르에 참가해 현대무용 프로 여성부 1위에 입상한 데 이어 박해림(여원학교) 학생이 독일 에틀링겐 국제 피아노 콩쿠르 A 부문 2위에 올랐다. 또한, 서울국제무용콩쿠르에서는 한승희 학생(서울예술고등학교)이 발레 주니어 부문 1위를, 코리아국제발레콩쿠르에서는 김시진(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이 시니어 남자 금상을 받았다. 김준형 기자 junior@

美 백악관 30년 만에 첫 흑인여성 대변인 공식 브리핑

장 피에르 수석부대변인...여성 동성애자로는 사상 처음

미국 백악관 공식 브리핑실에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흑인 여성 대변인이 연단에 올랐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정치 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수석 부대변인은 백악관 브리핑실에서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약 50분 동안 공식 브리핑을 진행했다.〈사진〉 흑인 여성이 백악관 공식 브리핑에 나선 것은 1991년 아버지 조지 H.W. 부시 행정부에서 일했던 주디 스미스 전 부대변인 이후 처음이다.

장 피에르 부대변인은 스스로 성 소수자임을 밝힌 인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 깊다는 평가다. 그는 자신이 레즈비언이라고 커밍아웃한 바 있는데, 스스로 여성 동성애자임을 밝히고 나선 인물이 백악관 공식 브리핑을 진행한 것은 미국 정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더힐은 "미래 백악관 대변인직을 위한 첫 번째 오디션으로 여겨지는 과정에서 역사를 썼다"고 평가했다.



장 피에르 부대변인은 브리핑실에서 "역사적 순간에 감사하다. 이 연단에 서 있는 것, 이 방 안에 있는 것, 이 건물 안에 있는 것은 누구 한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전체 미국인을 대표해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대표성이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며 "저에게 이러한 기회를 부여해 주는데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선 기자 hsbun@·사진 AP연합뉴스

'48년간 무료진료 봉사' 고영초 건국대 교수 'LG 의인상'

가사도우미 등으로 평생 모은 재산 이웃에 기부한 노관순 씨도

LG복지재단은 48년간 무료진료 봉사의 길을 걸어온 고영초(68·왼쪽 사진) 건국대 교수와 가사도우미, 식당 일 등으로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한 노관순(81·오른쪽) 씨에게 각각 LG의인상을 수여했다.

고영초 건국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의대 분과 재학 중이던 1973년 카톨릭학생회에 가입해 매주 서울 변두리 쪽방촌 등 의료취약지역을 찾아 형편이 어려워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진료하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48년간 무료 진료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고 교수는 "어떤 날은 병원에서 몇 시간 힘들게 수술하고 한 시간 넘게 운전해서 의료봉사 현장에 가면 파김치가 되기도 하지만, 막상 도착해서 봉사자들과 함께 즐겁게 일하고 환자들과 만나 진료하다 보면 피곤함이 씻은 듯 사라진다"며 "이런 보람과 기쁨이 40년 넘게 자발적으로 이곳으로 나를 이끄는 삶의 원동력이 된

것 같다"고 담담히 말했다. 군산에 거주하는 노관순 씨는 가사도우미와 식당일, 목욕탕 운영 등으로 평생 모은 전 재산 4억3000만 원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했다. 그는 지금도 전북 군산시에 있는 작은 단칸방에서 월세로 살고 있으며, 경로당에서 제공하는 무료 급식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하는 등 근검절약하는 삶을 살고 있다.

노관순 씨는 "평생 외롭고 힘들게 살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이들을 위해 내가 뭔가를 해줄 수 있어 기쁘다"고 담담히 소감을 밝혔다. 송영록 기자 syr@



인사

-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기획담당관 한성수 △주택기금과장 배성호
- ◆국가철도공단 ◇처장급 △경영지원처장 김경렬 ◇부장급 △고객차기부장 송정미
- ◆한국조폐공사 △부사장 겸 기획이사 김영석 △총무이사 추성열
- ◆국민일보 ◇편집국 △문화전문기자 손영옥(이상 부국장) △경제부장 고세욱 △사회2부장 신창호 △문화스포츠레저부장 송세영(이상 부국장 대우) △사회2부 이영재(이상 부장) ◇종교국 △미션편집부장 김재하(이상 국장대우) ◇경영전략실 △기획위원 권혜숙(이상 부국장대우) △경영지원팀장 이신학 △경영지원팀 김동균(이상 부장대우) ◇선교홍보국 △독자지원팀장 김용관(이상 부국장대우)

'배고픈 애벌레' 쓴 그림동화 거장 에릭 칼 별세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림동화 '배고픈 애벌레'를 쓴 미국 작가 에릭 칼이 별세한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다. 향년 91세. 칼의 유족은 칼이 23일(현지시간) 매사추세츠주 노샘프턴에 있는 작업실에서 신부전으로 숨을 거뒀다고 밝혔다고 AP통신과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이 26일 보도했다.

칼의 대표작은 '배고픈 애벌레(The Very Hungry Caterpillar)'다. 1969년 6월 처음 출간된 '배고픈 애벌레'는 허기진



애벌레 한 마리가 일주일 동안 음식을 먹고 자라나 나비로 성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출판사 펄크 랜덤하우스에 따르면 224개 단어와 그림들로 구성된 이 책은 한국어를 포함한 70여 개 언어로 번역돼 5500만부 넘게 팔렸다. 배고픈 애벌레는 당초 책벌레를 주인공으로 한 이야기로 만들어졌다가 편집자 권유를 통해 지금과 같은 이야기로 탈바꿈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1994년 NYT 인터뷰에서 '배고픈 애벌레는 희망에 관한 책'이라며 "누구든지 성장하고 날개를 펼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외에도 같은 '나랑 친구 할래?'(Do

You Want to Be My Friend?, '머리부터 발끝까지'(From Head to Toe) 등 작품 70여 편을 통해 간단한 단어와 밝은 색상으로 세계관을 그려냈다. 같은 1999년 문학상 '리자이나 메달', 2003년 아동문학상 '로라 잉걸스 와일더상'을 받았다. 연합뉴스

부음

- ▲최갑순 씨 별세, 김장현·윤치영·윤만영·김옥순·윤순영 씨 모친상, 류지수(GC 녹십자 CHC본부장 전무) 씨 장모상 = 26일, 용인 보정장례식장, 발인 28일 오전 8시, 031-276-4001
- ▲주희돈 씨 별세, 김형근(전 코리아헤

럴드·중앙일보 기자, 아시아타임즈논설위원) 씨 장인상 = 26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지하 1층 14호, 발인 28일 낮 12시, 010-2326-5336

▲배혜순 씨 별세, 박정호 씨 부인상, 박혜정·근성(아람코코리아대외협력·경영지원 전무)·근영 씨 모친상 = 26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29일 오전 8시, 02-3410-6915

▲최창식 씨 별세, 최형석(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일반기부금시장팀 팀장) 씨 부친상 = 26일, 중앙대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29일 오전 11시, 02-860-3500

▲김은자 씨 별세, 김혜선·혜정·승은·익

태(기아특수사업부문상무)·익현(법무법인 지석 대표변호사) 씨 모친상, 홍성철(신화건설 부사장) 씨 장모상 = 27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2호실, 발인 29일 오전 6시, 02-3010-2000

▲강갑신(6·25 참전 무공훈장 서훈 국가유공자) 씨 별세, 강정백·정애(19대 속명여대 총장)·정향·석우(유창유업 대표)·희정·정원·석문 씨 부친상, 권영민(중앙대 교수)·김관선(도수향 대표)·이형선(심산 김창숙기념사업회 사무총장)·정성경(JTBC 뉴스제작담당 부국장) 씨 장인상 = 27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실, 발인 29일 낮 12시 30분, 장기 국립서울현충원, 02-2258-5967

윤기영의 미래토크



한국외국어대 경영학부 미래학 겸임교수

메타버스 기반 기술이 충분히 성숙할 것을 기다릴 수 없었던 사람들은 메타버스의 개념을 확장시켰다. 몰입형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메타버스라고 분류했다. 포트나이트, 로블록스 및 제페토가 그 사례다. 그렇다고 이들 플랫폼이 미래에 진정한 메타버스로 성숙할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들을 진정한 의미의 메타버스라고 부르기에는 진정한 메타버스가 가지는 함의가 너무 크다.

작년 4월 게임 플랫폼인 포트나이트의 파티로얄에서 트래비스 스콧은 가상 라이브를 통해 2000만 달러의 매출을 달성했다. 올해 3월 미국의 3D 게임 플랫폼인 로블록스는 상장 당일 주가가 54% 급등했다. 네이버의 아바타 소셜미디어인 제페토는 가입자 2억 명을 넘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메타버스다. 이들 기업의 성공은 메타버스의 실체에 대한 고민에 앞서 돈이 되는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메타버스란 ‘~의 위’ 또는 ‘~에 관한’을 뜻하는 ‘meta’와 우주(universe)의 ‘verse’의 합성어로, 공상과학소설(SF) 작가 닐 스티븐슨의 1992년 소설 ‘스노 크래시(Snow Crash)’에 등장하는 몰입형 가상현실 게임 플랫폼이다. 스티븐슨이 그린 메타버스의 특징은 몰입형 가상현실, 아바타, 플랫폼으로 나눌 수 있다. 이 플랫폼에는 사용자가 디지털 콘텐츠, 게임, 원격회의, 온라인 비즈니스 등을 제공하고 소비할 수 있으므로, 비즈니스 모델인 플랫폼과 동일하다.

메타버스는 당시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어 다수의 게임이 개발되었다. 그런데 스티븐슨이 생각했던 메타버스를 구현하기에는 당시 기술이 부족했다. 그럴듯한

몰입형 가상현실 기기는 2016년에 들어서야 비로소 등장했다. 2021년인 현재 스티븐슨이 그렸던 가상현실 기기의 스펙을 넘어서기는 했으나, 가상현실을 편하게 즐기기에 해산도는 부족하고 착용시 어지럼증이 있으며 시야각은 협소하다. 이 때문에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에 상당한 투자를 했던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조차 2019년 “가상현실 시장이 2020년대에 성숙하지는 못하겠지만, 2030년 이전에는 충분히 성숙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타버스 기반 기술이 충분히 성숙할 것을 기다릴 수 없었던 사람들은 메타버스의 개념을 확장시켰다. 몰입형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메타버스라고 분류했다. 포트나이트, 로블록스 및 제페토가 그 사례다. 그렇다고 이들 플랫폼이 미래에 진정한 메타버스로 성숙할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들을 진정한 의미의 메타버스라고 부르기에는 진정한 메타버스가 가지는 함의가 너무 크다.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이라고 비즈니스가 되고 투자할 가치가 있다면 진정한 메타버스와 유사 메타버스를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몰입형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은 ‘통 속의 뇌(brain in a vat)’의 현실 버전이다. 통 속의 뇌란 ‘우리의 뇌를 두개골에서 꺼내 통 속에 넣고 다양한 센서로 연결한다면 우리가 통 속에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을까’라는 사고실험을 일컫는다. 우리는 ‘현실과 구분이 되지 않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에서 정체성을 형성하고 타인과 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메타버스는 교육, 업무수행, 정치, 경제활동 및 사회공동체 간의 교류에 있어서 근본적인 전환을 야기한다. 메타버스의 가상현실 혹은 증강현실 속에서 실감형 교육을 받으며, 집에서 프랑스의 파리 몽마르트 거리를 걷다가, 멕시코 시티로 뛰어넘어 가상현실의 상가에서 판초우의의 질감을 느끼며 쇼핑을 할 수 있다. 메타버스의 아고라에서 정치인의 세세한 표정을 눈앞에서 보며 그의 주장을 듣고 토론을 하게 될 것이다. 몰입형 콘텐츠는 개인을 영화의 주인공으로 만들 것이며, 게임과 영화와 열린 소셜이 결합된 새로운 유형의 장르가 나타나고, 3차원의 제품 설계를 메타버스 안에서 수행할 것이다. 메타버스 안에서는 나이, 외모, 성, 인종을 넘나드는 다중 정체성이 새로운 문화

로 정착할 것이다. 이러한 전환이 진정한 메타버스와 그렇지 않은 메타버스를 구분해야 할 이유다.

그렇다고 유사 메타버스에 대한 현재의 인기를 거품으로 판단하지는 것이 아니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메타버스 생태계도 생각보다 견결음으로 성숙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사 메타버스가 진정한 메타버스로 성장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메타버스 생태계에 대해 트렌드 리더를 그리고, 관련 비즈니스 모델을 선행적으로 고민하고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메타버스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이들 기기 개발사가 메타버스 플랫폼을 주도할 가능성이 낮아졌다. 이에 대한 대응 전략과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정부는 국내외의 메타버스 생태계를 건강하게 마련할 수 있는 마중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공동체와 개인은 현실로 내려온 통 속의 뇌의 세계에서 다중 정체성이 가져올 가능성과 폐해를 미리 고민해야 한다. 아울러 메타버스가 가져올 변화를 새로운 일자리로 삼을 줄 알아야 한다.

게임이론으로 세상 읽기

정대영 포항공대 인문사회학부 교수



“그래, 그것(도지코인)은 사기야. (Yeah, it’s a hustle.)”

5월 초,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새터데이 나이트 라이브’라는 코미디쇼에 출연해서 한 말이다. 이 ‘농담’은 누군가를 웃게 해야 했다. 적어도 제작진의 의도는 그것이었고, 영상에서는 방청객들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머스크가 이 ‘농담’을 던지는 동안 도지코인의 가격은 30%나 급락했다. 도지코인 투자자들에게는 이 코미디쇼가 호러쇼가 되어 버린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최근 암호화폐의 가격이 급락을 거듭하고 있다. 사실 이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가 탄생한 이후, 그 가격은 수차례의 급등과 급락을 반복해 왔기 때문이다. 다른 어떤 화폐나 자산에 비해 암호화폐의 가격 변동

암호화폐 흔들는 머스크의 신호게임

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자들을 통하여 보고되어 왔다. 이러한 변동성을 이해하려면 암호화폐가 무엇인지, 그 본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암호화폐의 정의(definition)는 상당히 구체적이지만 그만큼 복잡하다. 암호화폐는 어떤 권위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금과 같은 실물에 기초하지 않는 디지털 화폐로, 컴퓨터의 계산능력을 활용하여 가상의 코인을 채굴하면 그것이 화폐의 공급으로 이어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가 법으로 규정되어 특정 국가의 법정통화로 통용되는 것과 달리, 암호화폐는 주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을 통하여 소유와 거래가 증명된다. 문제는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이들 중에서 이렇게 복잡한 정의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이들이 상당히 적다는 점이다.

암호화폐가 화폐로 기능할 수 있는가

대해서도 논쟁이 있는데, 확실한 것은 현재와 같이 가격의 변동성이 높은 상황이라면 화폐로 기능할 수 없다는 점이다. 교환의 수단인 화폐로 기능하기 위한 필요조건이 바로 가격의 안정성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높은 가격 변동성이 암호화폐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이끌었다.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이들에게 투자자산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다만 주식과 같은 투자자산과 달리 암호화폐의 기초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대중의 합의가 없다 보니, 투자의 근거가 되는 정보라는 것이 상당히 불명확하다.

필자가 참여한 연구에 따르면 암호화폐의 가격 변동성에는 그 본질과 전혀 관련 없는 뉴스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투자자들이 ‘관련 없는’ 정보를 관련이 있다고 믿고, 그에 따라 투자 결정을 했었다는 것이다. 머스크의 ‘농담’도 그러한 정보였다. 그의 말 한 마디에 테슬라의 주가가 출

렁이고 도지코인 가격이 급변하는 것을 보아왔던 투자자들에게, 그의 ‘농담’은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는 신호가 되어 준 것이다. 상당히 불공정한 신호게임이다. 영향력을 가진 소수만이 신호를 보낼 수 있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은 그 신호를 해석하는데 신경을 곤두세워야 한다.

머스크는 신호를 가볍게 던질 수 있다. 천문학적인 부를 가진 그는 도지코인의 가격이 다시 오를 때를 기다리며 버틸 수도, 손실을 감수하고 투자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 심지어 낮아진 가격에 더 많은 코인을 사들여 차익을 노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개미투자자들에게 머스크의 농담은 너무나도 무겁다. 전 재산을 쏟아부은 누군가는 머스크의 가벼운 농담에 인생이 좌지우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통화를 꿈꾸던 암호화폐가 경제권력에 휘둘리고 있는 이 신호게임 속에서, 누군가가 무심코(?) 던진 농담에 개미투자자들의 가슴이 터진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알프레드 아들러 명언 “자신의 신념을 위해 싸우다 죽는 것이 신념을 지키며 살기보다 쉽다.”

오스트리아 태생의 유대인 의사. 열등감의 연구와 치료에 힘을 쏟은 그는 ‘신경증 기질’을 발표한 뒤 미국으로 이주했다. 인간에 대한 편견을 배제하고 ‘협력과 사랑’으로 인류를 치료할 수 있다는 대중 강연을 계속했던 그는 오늘 눈을 감았다. 1870~1937.

☆ 고사성어 / 인언수재(人言瘦哉) ‘사람이 어찌 마음과 본성을 숨길 수 있을 것인가’라는 말이다. ‘수(瘦)’는 숨긴다는 뜻이다. “그 사람이 하는 짓을 보고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살피고 그 사람이 어떤 것에 만족을 느끼는지를 관찰한다면 그의 사람 됨됨이를 어디다 숨기랴[視其所以觀其所由察其所安人言瘦哉].” 출전 논어(論語) 위정편(爲政篇).

☆ 시사상식 / 슬리포노믹스 (sleeponomics) 숙면을 위해 돈을 많이 지출하면서 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수면(sleep)과 경제학(economics)의 합성어로 수면경제를 뜻한다. 우리나라 수면장애 진료 환자는 2008년 22만여 명에서 2012년 35만여 명으로 증가했다. 한국인 평균 수면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짧은 7시간 49분(2009년 기준, 프랑스는 8시간 50분)이다. 지난해에는 3조 원의 시장 규모로 성장했다.

☆ 유머 / 얼리 버드 매일 밤 늦게까지 놀다 들어와 늦잠 자는 아들을 보다 못한 아빠가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 법”이라고 훈계했다. 아들의 항변. “그지만 아빠. 그 벌레는 일찍 일어나서 잡아먹히잖아요?” 아빠의 꾸지람. “이놈아, 그 벌레는 너처럼 밤새도록 놀다가 새벽에 집에 기어들어 오다 잡아먹히는 거란 말이야!”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기자수첩

이동욱 부동산부/toto@



부진한 해외건설, 체질개선 시급하다

다. 이렇다 보니 변화하는 글로벌 건설시장의 흐름을 제때 파악하지 못하고 뒤처질 수밖에 없었다.

해외건설 시장의 판도는 빠르게 바뀌고 있다. 과거 EPC(설계·조달·공사) 중심의 단순 도급사업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국내 건설사들의 경험이 부족한 투자개발형 사업(PPP)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와 함께 수주 텃밭이던 중동시장 발주도 줄어들면서 신시장 개척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과거 저가 공세로 수주에 뛰어든 중국은 이제 선도 업체들과 기술 격차

를 좁히며 해외 건설 시장 물량의 40%를 거머쥐고 있다. 인도와 터키 등 후발 주자들도 국내 업체들의 텃밭을 공략하고 있다. 최근 환율 하락(원화 강세) 영향으로 기술력이 좋은 미국·유럽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게 된 것도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신규 수주를 어렵게 하는 원인이다.

전문가들은 기술력을 키워야 해외 수주 경쟁력이 올라가고 저가 수주를 탈피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단순 도급 사업에서 벗어나야 마진을 높일 수 있고, 공기 지연 등에 따른 손실 등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외국 건설사와 수주 경쟁을 펼쳐야 하는 국내 건설사들에 힘이 될 수 있는 요소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세계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해외 건설 수주 환경도 악화하고 있다. 가격 경쟁력에선 중국·인도에, 기술 경쟁력은 미국·유럽 등에 밀리며 국내 건설사들의 수주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해외건설협회 자료를 보면 국내 건설사들의 올해 해외 수주액은 101억7040만 달러에 그치고 있다. 연간 해외 수주액은 2015년 461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내리막 길을 걷고 있다. 국내 건설사의 경쟁력 약화가 수주 부진의 최대 원인으로 꼽힌다. 2015년 국제유가가 배럴당 20~30달러대까지 급락하자 건설사들은 해외시장 실적 악화를 우려해 국내 주택 공급에만 집중했

이슈&인물

취임 6개월 맞는 한국거래소 수장

손병두 이사장

“모처럼 맞은 자본시장 호기 놓치면 안되지요”

“자본시장에 모처럼 찾아온 호기를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쌓아온 플랫폼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거래소 역시 굴지의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특유의 자신감 있는 목소리와 온화한 표정으로 거래소 조직 내부와 외부를 아우르는 포부를 밝혔다. 지난해 12월 21일 취임한 손 이사장은 취임 6개월 차에 접어들었다. 소회를 묻자 “5개월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자본시장의) 특별한 시점에 온 것 같다”면서 “우리 증시가 저평가 국면, 소위 박스피라고 불리던 자본시장에 새로운 장이 열렸고, 조직의 장(長)으로서 굉장히 큰 변화를 압축적으로 짧은 기간 지켜볼 수 있었던 것은 행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증시 호재 기쁘지만 속제도 많아

실제로 손 이사장 취임 이후 국내 증시에는 경사가 많았다. 대표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초로 3000선을 넘어섰고, 코스닥지수도 21년 만에 1000선을 재돌파했다. 이외에 코스닥 상장사도 1500개사를 넘기기도 했다.

손 이사장은 “호재가 있어서 기쁘지만 동시에 전임자보다 많은 속제가 안겨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취임 초부터 끊임없이 자본시장에 모처럼 찾아온 호기를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자본시장 안정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공정’이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2년째 지속되고 있는데 자본시장 안정이 최우선이지만 그중에서도 불공정한 구멍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다”며 “소위 ‘동학 개미’라고 부르는 개인투자자들이 모처럼 자본 시장에 신뢰를 주시는데 실망을 주면 안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개인 투자자들이 특히 관심을 많이 가진 공매도 부분에서, 그분들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끼면 다시 등을 돌릴 것 같아 부분재개 할 때 신경을 많이 썼다”면서 “꼼꼼히 준비한 만큼 성과도 있었고, 재개 한 달 차까지 시장에 혼란을 주는 큰 문제는 없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공매도가 재개된 지 3주까지 통계를 보면 총거래대금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대금이 재개 전 4% 수준에서 2.8% 수준으로 줄었다. 공매도 현황은 실시간으로 보고 있지만 불법 공매도의 경우 한 달 단위로 보는 만큼 세부 결과는 다음 주 정도 돼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손 이사장은 “공매도에 대한 평가는 이 제도에 불만을 가졌던 투자자 입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며 “특별 감리단을 만들어서 인력 투입도 많이 하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어찌됐든 시장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풀어주도록 노력할 생각이다”고 설명했다.

많은 기업들 국내시장 쪽으로 결정

올 초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하면서 국내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 기업)들도 해외 증시로 줄줄이 나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



취임 6개월째를 맞는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큰 변화를 압축적으로 짧은 기간에 지켜 볼 수 있었던 것은 행운”이라면서 “호재가 있어서 기쁘지만 동시에 전임자보다 많은 속제가 안겨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개인투자자 신뢰, 실망 줘선 안돼
자본시장의 공정성에 가장 신경
공매도 부분재개도 꼼꼼한 준비

쿠팡 해외증시 상장 우려 제기
유망 유니콘 기업 국내시장 위해
직접 설명 나서, 상당 부분 성과

ESG, 투자 판단기준 될 수 있게
스몰캡 독립 리서치 조직 강화해
투자자간 정보격차 해소도 모색

됐다. 거래소 역시 발 빠르게 움직이며 유망 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다. 실제 상당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 손 이사장의 생각이다.

손 이사장은 “쿠팡이 미국 상장할 때는 다들 일종의 해외 진출 리시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는데 유행처럼 자기 사정과 맞지도 않는데 해외 증시로 나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때문에 지금까지 앉아서 오면 상장을 받던 것을 거래소 직원들이 나가서 유치하도록 했고 실제로 간부들이 기업을 직접 찾아 설명도 하면서 상당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크래프톤, 카카오페이, 야놀자 등 상당수의 기업을 국내 증시로 끌어들이 수 있을 거 같다”며 “단정적으로 말하긴 힘들지만 이외에도 여러 기업들이 국내 시장으로 결정해 왔고 스탠스를 바꾸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또한 지배 지분이 적어서 차등의결권 때문에 해외 증시로 나갈 것을 고민하는 기업들도 적지 않은 상황인데 국회에서 차등의결권 관련 논의가 시작된 만큼 추후 이에 대한 성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손 이사장은 예상했다.

ESG 투자 정보포털 기능 할 수 있게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에 대책도 빼놓지 않고 있다. 그는 “거래소가 할 일은 ESG가 투자하는데 판단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ESG는 추상적인 내용인 만큼 구체적인 판단까지 할 수 있는 종합정보포털 기능

★손병두 이사장은

△1964년생 △서울 인창고등학교 졸업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학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미국 브라운대 경제학 박사 △행정고시 33회 △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 △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장, 외화자금과장, G20기획조정담당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사무처장, 부위원장 △제7대 한국거래소 이사장

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자들 간 정보격차를 막기 위한 스몰캡 독립 리서치 조직도 속도를 내고 있다. 손 이사장은 “증권사들이 내놓는 기업 보고서 대부분이 라지캡(대형사)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 간 정보격차는 꾸준히 지적된 문제”라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증권사에 비교해 절대 떨어지지 않는 양질의 리포트를 양산하기 위한 조직 구성을 준비 중이고 올해 하반기 중에는 가시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시장과 소통하는 동반자 될 것

손 이사장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거래소 조직 변화에 대한 계획도 제시했다. 취임 당시 책임감 있는 파수꾼, 시장과 소통하는 동반자 그리고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자가 될 것을 강조한 손 이사장은 앞장서 실천하고 있다. 취임 100일을 맞아 ‘5대 핵심전략 및 20개 추진과제’를 발표했고, 거래소 직원들과 ‘CEO와 함께 하는 소통 콘서트’를 통해 거리낌 없는 소통에 나선 바 있다.

손 이사장은 “거래소 직원 개인의 경쟁력도 높고 능력은 있는데 조직 문화가 관료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 “현재 채택 시스템만 하더라도 채택근무자는 업무에서 제외하는 시스템인데 스마트 워크 환경을 도입해 효율성을 높이고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유연하고 역동적이며 젊고 트렌디한 직장으로 바뀌어나가고 싶다”고 소망을 밝혔다.

이어 “현재 우리 거래소는 수입의 70%가 매매 수수료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거래소가 그동안 쌓아온 플랫폼과 데이터가 많은 만큼 정부사업, 인덱스 사업 등을 통해 지나치게 매매 수수료에 의존하는 현 구조에서 탈피해 글로벌 추세에 맞는 기업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박기영 기자 pgy@

시설

시장 혼란 부른 여당의 오락가락 임대사업 정책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의원총회를 열어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중단하기로 했다. 생계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은 유지된다. 지난해 아파트에 이어 다세대와 단독 등 일반주택 임대사업자제도도 사라지게 됐다. 임대사업자제도가 폐지되는 것은 27년 만이다.

임대등록제도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1994년 도입됐다.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인상 5% 제한 등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 혜택을 주는 게 골자다. 현재 임대사업자의 남은 임대 기간(의무기간 10년)을 고려하면 2030년쯤 임대사업자제도는 사라지게 된다.

임대사업자제도는 오락가락 정책의 결정판이었다. 애당초 임대사업을 장려한 것은 정부였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첫해인 2017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세입자와 집주인이 상생하는 정책을 펴겠다”며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든가 아니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독려했다. 이 같은 기조는 오래가지 못했다. 돌변한 정부는 2018년 임대사업자에게 제공했던 여러 가지 혜택을 거둬들였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낮췄고 조정지역 내 신규 취득 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했다. 지난해엔 아예 대출을 묶고 4년, 8년 아파트 임대도 없애 버렸다. 누더기가 된 제도를 아예 없애 버리기로 한 게 의총 결론이다.

민주당의 이 같은 결정은 임대사업자의 주택이 매물로 나와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다. 매입임대사업자로부터 조기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등록 말소 후 6개월 동안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부동산 가격 급등 등 정책 실패 책임의 일단을 임대사업자에게 돌린 셈이다. 정부를 믿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들은 날벼락을 맞았다. 정부의 정책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시장 안정은 커녕 시장 불안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여당의 임대사업자 압박으로 등록 임대매물이 줄어들면서 매물절벽을 초래했다. 지난해 8월부터 올 4월 말까지 사라진 등록 임대주택만 50만708가구에 달했다. 전월세 대란의 단초가 됐다. 게다가 임대사업자제도를 폐지하면 그 피해가 세입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실증적인 연구 결과도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토연구원의 ‘민간임대주택등록 활성화제도의 성과점검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가 집값 상승을 유발했다는 근거는 없다. 되레 전월세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됐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준공공성을 갖는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축소되면 그 여파로 임대료는 상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작동한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시장원리를 무시한 탓이다. 26번의 대책으로도 집값과 전월세 급등을 막지 못했다. 시장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임대사업자제도 폐지가 또 다른 실패의 고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영화로 보는 세상

지울 수 없는 기억을 위하여 ‘이터널 선사인’

어느 시인은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라고 하면서 실연의 아픔을 창작의 소재로 승화시키는가 하면, 잘 아는 후배는 7년간의 치열했던 사랑을 끝내고 피투성이 상처를 위무하기 위해 강원도 선자령을 무작정 걸었다 한다. 그만큼 누구에게나 사랑의 상실은 견디기 힘든 고통이며 하루빨리 잊고 싶은 기억일 것이다.

그래서 영화 ‘이터널 선사인(Eternal Sunshine in the Park)’에서는 필요한 기억만 정확히 삭제해 주는 병원이 성업 중이다. 여기서 가장 인기있는 아이템은 사람의 기억 중에 가장 지워버리고 싶은 부분, 바로 누군가와 사랑했던 기억이다.

영화 첫 장면은 다시 봐도 인상적이다. 출근길 혼잡한 전철 플랫폼에서 불현듯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건너편 플랫폼으로 질주하는 조엘(짐 캐리). 직장으로 가는 대신에 땀방이를 친 것이다. 낯선 항구에 무작정 내린 조엘은 그곳에서 혼자 여행 온 클레멘타인(케이트 윈슬렛)을 우연히 만난다. 빨갛게 머리를 염색하고 독특한 매력을 풍기는 그녀에게 호감을 느끼게 된 그는 며칠 후 그녀가 일하는 서점에 뽀러타인데이 선물물 가지고 간다. 그러나 이게 웬일? 그녀는 그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그는 기억을 제거해 주는 병원에서 클

레멘타인이 자신과의 추억을 모두 지워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무엇이 얼마나 그녀를 아프게 했길래 그녀는 자신을 뇌에서 완전히 소거해 버린 걸까? 조엘은 그것이 몹시 궁금하고 괴로웠지만 결국 자신도 클레멘타인처럼 기억 제거 시술을 받고 만다. 자, 과연 그렇게 하면 둘 다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 영화는 기억 소거 후 두 남녀의 복잡한 심리를 보여주는 데 많은 시간을 집중한다.

독특한 상상력으로 사랑의 상처와 기억의 상관관계를 우리에게 화두로 던져 준 천재 감독 미셸 공드리네 덕분에 이 영화가 개봉한 그해 대



부분의 영화 시상식에서 각본상(아카데미상을 비롯하여)을 휩쓴다. 짐 캐리가 처음으로 영화에서 진지한 역할을 맡아 화제였지만 연기는 전혀 어색하지 않다. 다른 출연 배우들의 젊은 시절을 보게 되어 반갑기도 하다. 커스틴 던스트, 마크 러팔로, 일라이저 우드의 얼굴이 보인다. 영화의 결말은 우리의 가슴을, 마침내 서늘하게 만든다. 만날 사람은 만나게 마련이고 사랑할 사람은 어디에서든 알아볼 수 있는 걸까?

이 영화의 후기에 이런 게 있다. “자 이 영화를 안 봤다면 부럽습니다.” 박준영 크로스컬처 대표



에너지를 더했다 가능성을 넓혔다

급변하는 미래환경과 고객변화 속에서
에너지가 삶과 더 가까워질 순 없을까?

그래서, **GS칼텍스**가 시작합니다
지금과는 다른 확장된 경험과 가치를 제공하는
'에너지플러스'로
더 나은 내일을 향한 가능성을 넓힙니다



e+ **에너지에 공간가치를 더하다**
고객/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에너지플러스 복합개발

e+ **에너지에 디지털을 더하다**
차량 자동인식, 주유 간편결제로 편리함을 높이는 에너지플러스 모바일서비스
(비콘인식,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페이코/제로페이 등 간편결제)

e+ **에너지에 Mobility & Life를 더하다**
모빌리티 인프라와 라이프 서비스가 결합된 미래형 주유소 에너지플러스 허브
(EV충전, 수소충전, 마이크로모빌리티, 물류거점 서비스 등)

e+ **에너지에 혜택을 더하다**
고객에게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에너지플러스 신용카드